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楊茂木*

目次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음양합덕
II.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	IV. 민주주의와 음양합덕 사상
1. 주역의 구성과 형성 시기	1. 민주주의의 개념
2. 주역의 기본 사상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III. 대순 사상에 나타난 음양합덕	3. 민주주의와 음양합덕 사상
1. 대순 사상의 유래	4. 세계 평화 원동력으로서의 음양합덕
2. 대순 사상의 구성	V. 결 론
3. 대순 사상과 음양합덕	- 한국의 음양합덕 민주정치의 실현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낸 최선의 정치 제도로서 이미 선진 제국에서 도입,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천민 자본주의, 인간의 이기심 극복 실패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구 문명의 종말을 운위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다. 대순 사상에서 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과 함께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박사

4대 종지의 하나인 음양합덕은 이러한 혼란과 좌절을 막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종교 사상이며, 이 사상이 현실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로 구현될 때 더욱 빛을 더하게 된다고 본다.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참여의 정치이며 화합의 정치이다. 그리고 대화의 정치이며 타협의 정치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여와 화합, 대화와 타협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하지 않고는 국민 화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토론과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합과 타협이 없으면 국민 상호간에는 일종의 위화감 내지 이질감이 생겨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조화와 타협의 전통은 바로 인류 구원 사상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음양합덕이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합덕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그 바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은 생겨날 때부터 서로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서로 반대의 극을 달리는 존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짧지만 눈부신 민주주의 발전을 기록해온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음양합덕 사상의 보편적 진리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참여와 화합」 「대화와 타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독선과 자만」이 가득한 정치 행태만이 난무하여 국민 상호간에 불만과 불신으로 대립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치 아닌 인치」 「청사진 없는 개혁」 「국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킨 개혁」 등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문민정권(文民政權)」은 오히려 국민과 유리된 「무민정권(無民政權)」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한국은 요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따른 파업사태와 한보그룹 부도 파문, 그리고 김현철 사건 등을 잇따라 겪으며 나라가 온통 시끌벅적한 가운데 국민 상호간에 갈등만 증폭시켜 사회 일각에서는 위기감마저 감돌게 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라는 방식이 각 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불만과 갈등 해소의 새로운 절차로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지만, 그러한 방식을 통한 사회의 주요 갈등 해결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여러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항구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 과정은 전혀 취하지 않고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로 인해 그 정책은 국가 및 국민 경제를 총파국으로 이끌었다. 다시 말하면 김영삼 정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폭넓은 토론, 충분한 협의와 타협없이 이미 결정된 결과만을 국민과 야당에 제시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같은 통치 방식은 언제나 저항 세력과 그 지도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열광하던 국민들은 차츰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반대자가 늘었고, 그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물리력과 구태의연한 여론 조작방법이 동원되었다. 세상은 다시 권력해바라기들과 기득권자의 것이 되었다.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적 총의를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화와 타협의 한 축을 이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음양합덕의 정신은 한쪽의 독주와 다른 한쪽의 비타협 중 그 어느 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당의 독주도 잘못이지만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비타협의 자세를 버리고 독주하는 한쪽의 견제를 담당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법이나 안기부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사회 집단과 협의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막상 여당이 국회 상정을 서두르자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에 존재하는 대립과 합의가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원리를 도외시한 경향이 많았다. 한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없이 다수 국민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시하기보다는 다만 ‘나 아니면 안된다’ ‘나만이 도덕적이다’ 하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함에 있어서 지극히 ‘독선적이며 유아독존적’인 행태만을 반복해 왔다. 정치란 바로 사회내의 여러 모순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대화와 타협은 바로 음양 조화와 합덕을 말한다. 이 말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 덕이 합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음 따로 양 따로 하는 식으로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반만년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개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이 이념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의 개념을 짚은 말 한 마디 속에 명쾌하게 담고 있다. 이 홍익인간 사상은 앞으로 이 논문이 주로 다루게 될 대순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과 통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조성을 요구하며, 독존 독생적인 논리에 입각한 개아(個我) 완성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호혜적 공존의 원리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생존권·행복추구권·자유권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 그대로 일치되는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은 바로 대순 사상의 인간 존엄성을 전제로 한 후천 선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더듬어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서구의 여러 나라가 경험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민주 제도만을 도입하여 많은 시련을 겪어오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일제 식민지 통치의 형태, 그리고 서구적 관념이 혼재하는 혼합적인 정치문화의 의식 구조 속에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순 사상의 하나인 음양합덕 사상을 한국의 정치에 적용해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음양합덕의 의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음양합덕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민주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낸 최선의 정치 제도이다. 또한 음양합덕은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사상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 사상이자 후천개벽 사상의 중심 핵이다.

이미 필자는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 「대순사상과 한국정치」를 밝힌 바 있거니와(대순사상논총: -제1집-(대순사상학술원 편, 1996)), 이의 연속 연구로서 본고에서는 주제의 명징성을 견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음양합덕의 개념적 연결 고리를 한국의 경우에 국한시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음양합덕 사상의 적용 방안을 논구해보았다. 인류 구원의 사상으로서 음양합덕과 민주주의와의 본격적인 관계 정립은 다른 기회에 좀더 세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II.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

음양합덕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저 “음과 양의 덕을 합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이 어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진리의 근처에도 가기 어렵다. 증산은 “...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 ...”¹⁾ 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룰 변화의 길(道)을 찾는 것은 바로 음양합덕에 의해서 가능 해짐을 암시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후천 선경과 음양합덕은 대순 사상으로부터 비롯된다. 대순 사상의 특징은 한 마디로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하며, 단군의 흥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

1) 상제가 전주 이치안의 집에 써놓았던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란 글 속에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란 글귀가 있다. 같은 책, “제생: 43.”, p. 309

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대순 사상의 이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는 도주(道主·趙鼎山)²⁾가 발표한 종지(宗旨)³⁾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음양합덕 신인 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 네 가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음양의 부조화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후천 선경은 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음양합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또 대순지침에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⁴⁾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음양은 그저 단순한 음과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덕(德)이 작용함으로써 우주의 생성 유지 발전 변화의 현상이 나타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음양합덕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음양합덕은, 증산이 성육신(成肉身)하여 인간 세상에 오기 전, 법신(法身)으로서 천지 개벽 이래 인간을 교화할 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대순의 음양합덕 사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연원부터 정확히 구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사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주역의 구성과 형성 시기

『주역』은 중국 유학의 기본 경전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순전히 점사(占辭)로 6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분류 기호인 괘(卦)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괘 아래

2) 조정산은 을미년인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탄생. 성은 조(趙), 존휘 철제(哲濟), 자함은 정보(定普), 존호는 정산(鼎山)으로 후에 도주가 됨.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90

3) 도주가 을축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도·증산을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함. 같은 책, “교운: 2-32.”, p. 201

4)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각각 6가지의 길흉을 관별한 기록이 짝맞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효사(爻辭)라 한다. 또 이러한 괘사와 효사로 되어 있는 것을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384개의 효사로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10개의 괘사와 효사를 해석한 주석과 논술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십익(十翼)’ 또는 ‘역전(易傳)’ 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주로 우주론과 인생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다시 말하면, 언어나 문자 이전에 괴로써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천지지도(天地之道), 만물지정(萬物之情), 삼재(三才)로 표현하는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6)

『역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중국 원고(遠古)시대의 복희 당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7) 복희는 기원 전 약 4700여 년으로 중국 역사상의 첫 번째 왕이다. 일반적으로 상(象)이라고 말하는, 여덟 개로 된 사상적 부호인 8괘를 복희가 창안하고, 복희 이후 3500년쯤, 은주(殷周)가 교체하는 시기에 주의 문왕(文王)이 8괘를 중첩하여 64괘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왕보다 약 500년 뒤에 공자가 나타나 인도(人道)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점서의 폐단을 배격하고 순수하게 철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문왕의 괘효사를 해석하고, 복희(伏羲)와 문왕의 철학을 계승하여 집대성하였다. 8) 여기에 노자가 또한 주역 연구에 한몫을 담당했

5) 이규성 편,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p. 57~58

6) W. Barrett, ed. Zen Buddhism Selected Writings of D. T. Suzuki, p. 231. 「莊子」 <在宥>편에서는 天과 人을 다음과 구별하고 있다. “天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도에 통하지 못한 자여, 실로 슬프도다. 무엇을 도라 하느냐. 天道가 있고 人道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철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의 과제인 듯하다. 「노자」, 「장자」, 「역전」, 「중용」 등이 모두 이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7)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易을 「周易」, 즉 伏羲를 말한다. “羲”는 伏羲로 「周易」은 東夷族인 伏羲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太白逸史>에 보면 伏羲는 환웅 천황의 열두 아들 중 季子로 神市에서 태어나서 易理를 洞徹하고,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다. 복희의 묘가 지금 중국의 山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복희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周易」은 원래 복희가 터득하고 通理한 것으로, 그 기원은 동이족에 있다는 것이다. 복희 이후 周나라 文王을 거친 후 孔子에 의해서 「周易」이 집대성되었다. 金殷洙 譯註, 「桓檀古記」(서울:가나출판사, 1985), pp. 146~147 참조

8) 주역은 약 4000년의 기간 동안에 복희씨로부터 주문왕, 공자라는 세 분의 성인이

다.⁹⁾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역은 철학적 사상의 체계화가 이룩되었던 것이다.

2. 주역의 기본사상

1) 역학 사상의 본질과 전개

『주역』을 가리켜 흔히들 사람들은 점치는 책이라고 한다. 그건 문왕·주공이 복희의 역을 이어 받아 점사를 붙여 길흉 판별을 위해 주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공자가 문왕·주공의 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희역을 천역(天易), 문왕역을 죽역(竹易), 공자역을 인역(人易)이라고도 한다.¹⁰⁾

복희는 천문과 지리를 관찰하고 가까이는 몸에서(近取諸身), 멀리서는 사물에서 이치를 취하여(遠取諸物), 이를 8괘로 나타냈다.¹¹⁾ 8괘의 상(象)이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 등 자연 현상인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주초에 이르러 8괘는 64괘 384효로 늘어나고 괘·효사(爻辭)가 덧붙여지면서 서술(筮術)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복희의 역이 주로 자연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서술의 역은 주로 인간사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희역에 비하여 서술역은 그 용도가 실제 생활에서 매우 간절했고 또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출현하여 함께 힘을 합해 역학이라는 위대한 철학체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후대의 사학자 반고(班固)는 『한서 예문지(漢書藝文志)』에서 “역도는 참으로 깊구나! 세 분의 성인이 이어서 나오고 시대는 원고, 중고, 근고의 세 고대를 지났다” 라고 하였다. 세 분의 성인은 복희씨, 문왕, 공자를 말하고, 세 고대는 그 세 사람이 활동하였던 시대를 말한다. 「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 같은 책, pp. 17~20.

9) 노자는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그의 철학적 경향은 공자와는 다르다. 공자는 인도사상이 중심이 되어 패효사의 길흉회린의 판단사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이성적 철학적으로 역학을 해석하는 데 반하여, 노자는 역학의 형이상학적 방면에 치우쳐 근원으로서의 도를 철저히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후대인들은 공자의 역학을 유가역(儒家易)이라 하고, 노자의 역학을 도가역(道家易)이라고 한다.

10) 『周易傳義大全』, <繫辭傳> 上, 제12장, “誠齋楊氏曰 … 易有三 一曰天易 二曰竹易 三曰人易 天尊地卑 乾坤定矣 天易也 書不盡言 言不盡意 竹易也 存平其人 存平德行 人易也 聖人焉能行易之道 神而明之 默而成之 則易不在天 不在竹 而在人”

11) 같은 책, <繫辭傳> 下, 제2장 참조

있다. 서술역의 시기는 신의 권위와 능력에 호소하여 인간이 지니는 의심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신도(神道)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역 사상이 춘추 말기에 이르러 천(天)이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나타났다.¹³⁾ 천(天)은 인격을 지닌 절대자로서 곧 상제(上帝)이며, 자연계와 인간계 전체를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시(詩)』 · 『서(書)』의 천명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쪽이 유가라면, 인격적인 상제를 거부하고 천도(天道)의 자연 무위를 주장하며 자연계 본래의 이법에 따라 자연을 설명하고자 하는 쪽은 노·장(老·莊) 계통의 학자들이다.¹⁴⁾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시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역학에도 이러한 사고가 반영되었다. 점을 친다 하더라도 그 점사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덕이 있으면 점을 치지 않아도 그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신명(神明)한 덕을 지닐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점차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럴 즈음에 나타난 것이 이른 바 십익(十翼)이다. 십익은 본래 예, 인, 의 등 인사의 도와 덕에 치중했던 유가 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서술역을 근거로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관통하는 새로운 철학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하여 유가역이라고도 한다. 또한 십익은 『역경(易經)』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에서 『역전(易傳)』이라 부른다. 십익은 그 속에 도가적 자연 철학과 유가적 인생 철학이 잘 융합되어 있어 선진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⁵⁾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일의 성패와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점(기도)을 친다. 즉 점을 치는 목적은 의심의 결단(決斷)에 있다.¹⁶⁾ 사람은 누

12) 高懷民 著, 中國古代易學史(서울: 숭실대출판부, 1994), pp. 36~47

13) 勞思光 著, 鄭仁在 譯, 中國哲學史(서울: 탐구당, 1995), pp. 23~43.; 楊榮國, 中國古代思想史, pp. 65~71

14) 곽신환, 주역의 이해 -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서울: 서광사, 1990), pp. 23~26

15) 戴君仁은 십익이 『易』을 미신의 占卜에서 벗어나 철학 사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戴君仁, 『談易』, p. 4

16) 의심이 풀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 된다. 즉 역은 믿음을 갖고 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作易의 목적이 의심의 결단에 있다는 것은 <

구나 할 것없이 크게는 우주의 근원이나 인류의 근원, 운명의 근원 등에 대해 그 ‘근원을 찾으려는’ 강렬한 의식이 있다. 더욱이 앞으로 자신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되며, 가정운이나 부부운은 어떻게 되며, 재물운이나 사회 진출운은 어떻게 되며, 자식운이나 건강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해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절대자를 찾거나 점을 쳐서 앞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상서(尙書)』 <홍범편(洪範篇)>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너에게 큰 의심이 있거든 마음으로 도모해 보고, 주위 지성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백성에게 묻고, 그리고 복서로써 물어 보아라(汝則有大疑 謨及乃心 謀及卿士 謀及庶人 謀及卜筮.)”

위의 인용문 가운데 ‘대의(大疑)’란 말은 주로 전쟁, 질병, 기근, 제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또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 짜 내어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복서를 통해 천신(天神)에게 맡기라고 할 정도로 『주역』에서의 점서는 만인의 보편적 도구가 되었다.¹⁸⁾ 미래를 알고 일의 기미를 알아 미리 대처함으로써 취길피화(趨吉避禍)하려는 것은 만인의 소망이며, 점서는 이러한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¹⁹⁾

2) 우주 만물의 생성과 전개

『주역』은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을 상제(上帝)나 천(天)이라는 종교적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질서를 찾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격화된 어떤 존재가

繫辭傳> 上, 제11장에서 밝혀진다. 즉 “子曰夫易何爲者也 夫易開物成務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 是故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通志’ ‘定業’ ‘斷疑’는 모두 占筮의 목적이다. 의심은 두려움과 관계된다. 『易』은 바로 두려움의 해결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곽신환, 앞의 책, p. 31

17) 『論語』, <術而>, “子之所慎 齊戰疾.”

18) 鄭玄은 『周禮注』에서 “易者 揲者變易之數可占者也”라고 했다.

19) 丁若鏞, 『與猶堂全書』, <易論>,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之命 而順其旨者也.”

우주 만물을 창조, 운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자연의 이법과 질서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우주 운행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질서를 알아내어 모든 인간사에 적용하려 하였다.

우주 자연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 변화하는 자연 세계이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같이 자연 현상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생겨나며, 가득 차고 비고 하는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복희씨가 괘를 그림으로써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었다”²⁰⁾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복희가 8괘라는 이론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그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우주 자연의 신비를 어느 정도 밝힘으로써 그러한 의문과 두려움을 해소시켰다.

복희가 천지·만물을 근거로 하여 8괘를 그렸다는 사실은 <계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이 신물(神物)을 내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천지가 변화하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길흉을 보이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오니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効之 天垂象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²¹⁾

“옛날 복희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하늘에서 상(象)을 보고, 굽혀서 땅에서 법칙을 보아 … 이에 8괘를 그렸다. 이 8괘를 통하여神明(神明)한 힘과 소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헤아렸다(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²²⁾

그리고, 8괘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天·地·日·月·風·雷·山·澤 등 여덟 가지를 우주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러한 내용은 풍우란(馮友蘭)의 글에서 알 수 있다.

20) 『周易傳義大全』, <序卦傳> 下, 韓 註. “伏羲一畫 揭開宇宙之秘.”

21) 같은 책, <繫辭傳> 上, 제11장

22) 같은 책, <繫辭傳> 下, 2장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천·지이고, 하늘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일·월·풍·뢰이며, 지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산·택이고,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수·화이다. 옛 사람이 이 여덟 가지로 우주의 근원을 삼았다. 그래서 이를 8괘로 배치하였다.” 23)

또, <설괘전> 제3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우뢰로써 움직이고, 바람으로써 흩뜨리고, 비로써 운택하게 하고, 해로써 건조시키고, 산으로써 정지시키고, 연못으로써 기쁘게 하고, 건으로써 통치하고, 곤으로써 저장한다(雷以動之 風以散之 雨以潤之 日以暉之 艮以止之 兌以說之 乾以君之 坤以藏之.)” 24)

위의 인용문은 우뢰, 바람, 비, 해, 산, 연못, 건, 곤 등 8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계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천지는 찻다가 빈다. 때와 더불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天地盈虛與時消息.)” 25)

“사라지고 생겨나며, 찻다가 비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다
(消息盈虛 天行也.)” 26)

“역은 자주 바뀐다. 변동하여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 미쳐 상하가 일정하지 않고, 강유(剛柔)가 서로 바뀌니 불변의 법칙일 수 없다. 오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뿐이다(爲道也 婁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27)

“막히면 변하게 마련이요, 변하면 소통이 가능해지고,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易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28)

23) 馮友蘭, 「中國哲學史」上, p. 462

24) 「周易傳義大全」, <說卦傳>, 제3장

25) 같은 책, <風·象>

26) 「주역」, <象辭>

27) 같은 책, <繫辭傳> 下

28) 같은 책, <繫辭傳> 下.: 孔穎達도 「正義」에서 “變易者 其氣也 天地不變 不能通氣”라 하여 변화에 의한 소통을 말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다(生生之謂易.)” 29)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질서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세계를 부정한다거나 세계는 고정 불변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자도 이러한 사상을 자신의 우주관으로 수용하여 변화하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육 및 물의 끊임없는 흐름에 대해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가를 비판하는 노장 사상은 변화하는 자연 세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만, 유가들이 자연에 부여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³⁰⁾

3) 주역과 음양합덕 사상

우주 만물은 변동한다. 변동 자체는 일종의 추상적, 보편적 존재의 작용으로 그것이 우주 만물 속에서 유행하여 만물의 차별상을 있게 한다. 이 때문에 「주역」은 주로 자연의 변화에서 일정한 질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복희가 「一」의 부호를 그린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질서 작용을 상징한 것이며, 후대인들은 이것을 「태극」이라 부르며, 우주 근원으로서 또한 「도」를 상징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제나름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각기 나름의 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이상자(形而上者)를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形而下者)를 ‘기(器)’라 한다”³¹⁾라고 했다.

『주역』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변동 변화 과정은 반드시 대립적인 두 성질이 서로 밀고 당김에 따라 생긴다고 했다. 그러한 대립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음(陰: --)이고, 그것의 다른 하나는 양(陽: —)이다. 모든 사물과 일의 형세가 이 두 가지 음과 양의 결합, 즉 합덕(合德)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강유(剛柔)가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긴다” (剛柔相推而生變化)³²⁾거나 “강유가 서로 미는데 변화가 그 속에 있다” (剛柔相推 變在其中矣)³³⁾고 하

29) 같은 책, <繫辭傳> 上

30) 이규성, 앞의 책, p. 60

31) 같은 책, <繫辭傳>,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32) 같은 책, <繫辭傳>

33) 같은 책, <繫辭傳>

는 것이 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해가 뜨면 달이 지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지고, 성장하고 늙고 하는 등의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두 가지 작용이 서로 교체하여 변동하는 것이다. 한 번은 움직여서 올라가고, 가고, 나아가고, 성장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움직여서 내려오고, 오고, 물러나고, 노쇠함이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변동이나 변화라도 모두 그 반작용의 변동과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계사전>에서, “천하의 움직임은 일자에 근거한다”(天下之動貞夫一者也.)³⁴⁾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복희가 전개한 정(正)과 반(反), 즉 음과 양의 두 작용이 원래 태극의 「—」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로 말하면 하나이고, 나누어 말하면 둘이다. 그는 태극에 반작용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의 부호 「--」을 창조하였다. 「--」은 짧은 두 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두 번째 움직임의 작용, 즉 반동의 작용을 표시한다. 이 정과 반의 두 작용, 「—」과 「--」을 후대인들은 양의(兩儀)라고 말한다. 양의의 「—」과 「--」은 본질적으로는 태극의 「—」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태극의 「—」이 첫 번째 단계의 의미이고, 「—」과 「--」은 그 다음 단계이므로 ‘태극에서 양의가 생성됐다’라고 할 수 있다. 「—」의 부호는 양이라 하고 「--」의 부호를 음이라 하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변화와 변동은 이 음양의 유행과 소장(소장: 줄어들고 늘어남) 아닌 것이 없고,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계사전>에서도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림을 변화라 한다”(一闔一闢謂之變)³⁵⁾고 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것을 계승하는 것은 신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³⁶⁾라고 했다.

또, <계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진곤은 역의 문인가? 진은 양물(陽物)이요, 곤은 음물(陰物)이다. 음양

34) 같은 책, <繫辭傳>

35) 같은 책, <繫辭傳>

36) 같은 책, <繫辭傳>

이 그 덕을 합하니 강유(剛柔)가 생긴다. 이로써 천지의 일을 몸으로 구현하고, 이로써 신명의 힘에 통한다(子曰 乾坤其易之門邪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3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건곤은 역의 문이나 역의 온(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해야만 교감이 잘 되어 만물을 낳으며, “변통하여서 이로움을 다한다”(變而通之以盡利)고 한다. 즉 음양 변동이 자연스럽게 조화하여 순응하면 상득하고, 음양이 서로 합덕(陰陽合德)하지 못하면 불상득하고 만다.

모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동한다. 그러한 생성 변동은 하늘과 땅이 덕으로서 교감·합덕할 때 가능한 것이다. 덕으로서 합덕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형통하고, 모두 빛나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서 합덕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 만물을 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만물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이 덕으로서 잘 조화되어 교감하면 만물이 화생하여 태안(泰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게 된다.

<소축>(小畜)과 <소과>(小過)에 “밀운불우”(密雲不雨)³⁸⁾란 말이 나오고, <건·단>(乾·象)에 “밀행우시”(密行雨施)³⁹⁾란 말이 나온다. “밀운불우”란 기(氣)가 무르익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밀행우시”란 잘 풀려 형통한 경우를 말한다. 건의 경우는 품물유형(品物流形)이라 하며, 양창음화(陽唱陰和)하므로 “운행우시”가 되고, 소축괘와 소과괘에서는 음이 양을 누르므로 “밀운불우”가 된다.

건양(乾陽)과 곤음(坤陰)은 서로가 합덕으로 감응도 하고 교감도 하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가 합덕이 되지 않아 갈등 관계를 갖기도 한다. “밀운불우”와 같이 음과 양 두 기운이 만난다 하더라도 합덕·교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곤괘 상육(上六)에서 “용들이 들에서 싸운다. 그 흘린 피가 검고 누렇다”(龍戰于野 其血玄黃)고 한 것은 음이 양을 무시하는 데서 생긴 갈등의 참혹한 결과이다.⁴⁰⁾ 부괘(不卦)의 경우도 천지의 불

37) 같은 책, <繫辭傳>

38) 같은 책, <小畜>과 <小過>

39) 같은 책, <乾·象>

안을 나타낸다. 건과 곤의 만남이지만 각자 교감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태괘(泰卦)의 경우는 건양이 곤음을 받드는 데서 양자의 교통이 가능해져 두 기의 감응상여(感應相與)로 천시지생(天施地生)하여 만물이 화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제대로 이루어져 우주 만물이 제대로 생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과 양이 통지(通志)함에 있어서는 바른 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역지(易知)’와 ‘대생(大生)’, 곤의 ‘간능(簡能)’과 ‘광생(廣生)’, 건의 ‘확연(確然)’과 곤의 ‘퇴연(隕然)’의 자세를 말한다.⁴¹⁾ 또한 건은 만물의 ‘자시(資始)’요, 곤은 만물이 ‘자생(資生)’하는 바이며, 천은 베풀고(施), 지는 키운다(生). 모든 교감의 궤에서 겸도(謙道)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본다.⁴²⁾ 체(體)로서는 천존지비(天尊地卑), 건상곤하(乾上坤下)이지만, 용(用)에서는 건천(乾天)이 낮아져서 곤지(坤地)를 받들어야 비로소 합덕·교감이 가능하고 그 결과 만물이 화생하는 것이다.⁴³⁾ 이러한 겸도를 대장괘(大壯卦)에서는 ‘정·대(正·大)’로 규정한다. 즉 대장괘 단사(象辭)에서 “바르고 큼에서 천지의 정(情)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상사(象辭)에서는 “군자는 이 궤상을 보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모두는 음과 양, 건과 곤의 교감에는 반드시 바른 덕으로써 합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합덕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음과 양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만남 자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1대 1의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빠져야 하고, 한 사람이 가면 친구를 얻게 된다. 이는 하나됨을 말한다”(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言致一也.)⁴⁴⁾고 했다. 구괘(垢卦)는 한 여자가 다섯 남자를 만나는 상이다. 양이 비로소 음을 만나기 때문에 유(柔)가 강(剛)을 만나고 천(天)과 지(地)가 서로 만난다고 했으나, 능히 다섯 양을 상대하는 하나의 음이므로 “그 여자에게 장가들면 안된다”(勿用取女)고 하여 금하고 있다.

40) 같은 책, <坤·文言>, 上六, “陰疑於陽 必戰 爲其嫌於死陽也.”

41) 박신환, 앞의 책, pp. 104~109

42) 같은 책, <謙·象>

43) 교감의 대표적인 궤인 咸, 泰, 益이 모두 上陰下陽으로 되어 있다

44) 같은 책, <계사전> 下

셋째, 음과 양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함괘에 택(澤)과 산(山)의 만남이 있다. 즉 태소녀(兌少女)와 간소남(艮少男)의 젊은 남녀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이 바른 자세의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한다. 또, 몽괘(蒙卦) 육삼(六三)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란 말이 있다. 이 내용의 만남은 정당한 사랑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金夫)을 만나 정신이 현혹되어 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勿用取女 見金夫不有躬 死攸利.)⁴⁵⁾ 또 대과괘(大過卦)에 보면,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얻은 경우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모두는 다같이 비정상적인 만남으로 머지않아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상적이고 정당한 만남을 권유하고 있다.

Ⅲ. 대순 사상에 나타난 음양합덕

1. 대순 사상의 유래

「객망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6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이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甞山)이시니라. 때는 신미(辛未)년 9월 19일인, 즉 이조 고종(李朝高宗) 8년이며, 단기로서는 4204년이고, 서기로는 1871년 11월 1일이다.»⁴⁶⁾

증산은 서기 1871년 11월 1일(1871~1909), 전라도 고부면 객망리(지금의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에서 부친 강문회(姜文會: 자는 興周)와 모친 권양덕(權良德) 사이에 탄강, 성은 강씨·이름은 일순(一淳)·자는 사옥(士玉)·호는 증산(甞山)이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고 관후하고 총명하여 못 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았다고 한다.

증산이 태어나 성장할 즈음에의 국내외 정세는 여러 분야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가 득세해 외세의 침입이 잦았고, 국

45) 같은 책, <蒙>, 六三

4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행록: 1-5,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2

내적으로는 한말(韓末)의 통치체제가 부패하고 타락해 그 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신과 절망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파탄 상태에 빠져 민중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문란해져 양반 토호계급의 민중에 대한 수탈과 가렴주구(苛斂誅求)가 급증되었으며, 더욱이 수재·한발·괴질이 유행하여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암흑과 절망 속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 최수운(崔水雲: 1823~1864)이 나타나 “사람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동학교(東學敎)를 창도, 민중 포교에 종사하다가 1863년 천주학도(天主學徒)의 혐의를 받아 체포되어 1864년에 처형되었다. 제2세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잠복포교를 계속하여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892년부터 이 동학교도는 탐관오리의 제거와 교조의 해원(解冤)을 간청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나 간청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1894년 1월에 국민 평등의 인권주의와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면서 하층 민중들을 규합시켜 그 해 말경에 과감한 민중혁명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무장봉기는 관군과 일본·청군의 연합군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를 보였던 동학 조직은 그 후의 모진 탄압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하로 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도의 일부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행하여 포교하고 다닌 분이 바로 강증산이다.⁴⁷⁾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이름이 났고, 그의 나이 24세 되던 해에 동학혁명의 실패로 민중이 겪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25세부터 1년간 동양의 전통 사상인 유불선(儒佛仙) 음양참위(陰陽讖緯)를 비롯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으며, 27세부터 3년여에 걸쳐 조선 8도를 차례로 돌아다니며 민중의 어려운 생활상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나라의 어려움이 바로 세계의 어려움이고

47) 盧吉明, 韓國新生宗教의 形成過程 研究(서울: 서강대사회문제연구소, 1976), pp. 43~55

내 겨레의 아픔이 온 인류의 아픔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그는 도탄에 빠진 이 민족과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道)를 세우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31세 되던 1901년에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들어가 수도를 시작했다. 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행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다가 그 해 7월 5일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달아 성도(成道)하게 되었다. 그리고 증산은 자신이 천제(天帝)의 권한으로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를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으며, 기행이적(奇行異蹟),神通묘술(神通妙術), 치병(治病) 등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연속적으로 행하였다. 또 종도들에게는 태좌정심법(胎坐正心法)을 수련시켰으며, 태을주(太乙呪), 운장주(雲長呪), 시천주(侍天呪), 오주(五呪), 도리원서문(桃梨園序文), 서전서문(書傳序文) 등을 많이 읽게 하여 연력(鍊力)을 쌓도록 가르쳤다고 한다.⁴⁸⁾

증산은 1909년 8월 9일(단기 4242년 이조 순종 융희 3년 기유 6월 24일 신축 사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정기만 흠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⁴⁹⁾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하노라”⁵⁰⁾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⁵¹⁾ 라는 말씀을 김행렬과 종도들에게 남기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화천(化天)하였다.

증산이 돌아가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뭉게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하였다고 하며, 그 후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대순 사상의 구성

『대순사상은 강증산 구천상제(九天上帝)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으신 조

48) 앞의 책, 행록 참조

49) 같은 책, 행록: 5-33, p. 92

50) 같은 책, 행록: 5-33, p. 92

51) 같은 책, 행록: 5-35, p. 92

정산 도주(趙鼎山 道主)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받으신 박한경 도전(朴漢慶 都典)에게로 이어지는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다.⁵²⁾

대순사상은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산으로부터 비롯된다. 증산은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개조와 정신 개혁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천지공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은 바로 조정산⁵³⁾ 도주이다.

조정산(1895~1958)은 조부전래의 배일사상을 품으신 부친 조용모(趙鏞模)를 따라서 15세 되던 1909년 4월에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 동지들과 구국운동을 하면서 보천교인 김혁(金赫)과 자주 만나는 가운데 강증산의 도력을 알게 되어 구세 제민의 큰 뜻을 품고 수도 생활을 시작, 23세 되던 1917년 2월 10일 증산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 득도하고 개안영통(開眼靈通)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⁵⁴⁾는 말을 받고 1917년(정사년) 4월에 친계 가족을 거느리고 뱃길로 전북 태안에 도착하여 이정률(李正律)의 도움으로,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 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여 도를 밝히는 등⁵⁵⁾ 여러 곳을 다니면서 증산사상 포교에 진력하였다. 그러던 중 을축년(1925년)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만들어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였다. 그는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을 정하였다. 종지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

52)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第一輯」(경기 포천: 大眞大學校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1

53) 趙鼎山(성은 趙씨, 존휘는 哲濟, 자함은 定普, 존호는 鼎山)은 1895년 12월 2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태어나, 을미년 12월 4일 증산의 뒤를 이어 道主가 되었다.

54) 앞의 책, 교운: 2-1~8, pp. 191~192

55) 같은 책, 교운: 2-9~18, pp. 193~195

신조로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경(敬)·신(信)의 삼요체(三要諦), 목적으로 무자기-정신 개혁·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지상 천국 건설-세계 개혁을 정하였다.⁵⁶⁾ 그러나 일제가 계속 탄압, 1941년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무극도 또한 해체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그는 1948년 9월에 도본부를 부산시 보수동에 정하고 「태극도(太極道)」란 이름으로 교명을 바꾸어 포교를 시작하였다.⁵⁷⁾ 교인들 수는 나날이 늘어 갔다. 1955년에는 도본부를 부산시 감천동으로 이전하였다.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앙촌도 형성하였다. 그러던 중 1958년 3월 6일 박한경을 도전으로 종통을 전수하고, 그 해 4월 24일(음력 3월 6일) 향년 64세로 화천하였다.⁵⁸⁾

이러한 대순 사상을 민중 깊숙히 뿌리 박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도주 조정산에 이어 1958년에 도전이 된 박한경 도전이 구체화·활성화시켰다. 도전이 된 박한경은 1969년 6월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대순진리회 도본부를 열었다.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을 교주로 모시고, 조정산을 도주로 하고 있다. 도전은 80세를 일기로 1996년 1월 23일 화천하였다. 그는 살아 생전에, 종단 사업을 포덕, 교화, 수도 공부와 구호 자선, 사회 복지, 제반 교육사업으로 나누어, 그를 통해 대순 사상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앞장서 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세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할 수 있다.

56) 같은 책, 교운: 2-32, p. 201

57) 金洪喆·金相日·趙興胤, 韓國宗教思想史(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 91~93

58) 박한경은 1917년 11월 30일 충북 괴산군 상모면 문강리 207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의 이름은 景浩, 호는 牛堂이다. 그는 수안보 보통학교를 졸업, 일본 등지의 해외 유람을 하며 견문을 넓혔다. 30세가 되던 해인 1946년 4월에 조정산이 창도한 태극도에 입도했다. 1958년 음력 3월 6일 조정산의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받았다. 그러나 도주가 사망한 후 얼마 안되어 태극도는 신파와 구파로 분열, 구파는 조정산의 아들 趙永來가 도전으로 취임하였다. 신파는 몇 년간 도전으로 있었던 박한경이 1968년 7월 20일 이곳을 탈퇴, 서울 중곡동에 1969년 4월 「대순진리회」를 창설하고, 그 해 6월에 본부 도장을 설립했다. 같은 책, 교운: 2-60~66, pp. 218~220

3. 대순 사상과 음양합덕

대순 사상에서 대순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이며,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度數)이며, 도수는 삼계(三界)를 순환하는데, 신명(神明)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바로 대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 사상을 분석하려면 우주관, 신명관, 인간관으로 나누어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순 사상에 나타난 음양상합 및 음양합덕 사상을 위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대순 사상의 중심은 증산 사상이고, 증산 사상의 중심은 천지공사 사상이고, 천지공사 사상의 중심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음양합덕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은 주로 증산이 종도들에게 설파한 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의 민중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평등을 지양하고,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행해져야 된다고 설파하였다.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증산은 또 삼계(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의 생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상을 내세워 몸소 천지공사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천지공사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사람이 음양합덕에 의해 삼위 일체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전경」, <제생(濟生): 43.>과 <교운(教運): 2-42.> 등은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증산이 이치안에게 써준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를 살펴보고 이어 조정산 도주가 「무극도」를 창도, 무진년에 포유문(布喻文)을 선포하는 등 기행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주문을 사용한 것 가운데 <음양경(陰陽經)>을 보기로 한다.

고견원려왈지(高見遠慮曰智):

(높이 보고 멀리 생각함이 지혜다)

<지혜란 천지와 같으니 춘하추동(봄·여름·가을·겨울)의 기운이 있다. 매사에 마음대로 쓰는 것을 지혜(智慧)와 용력(勇力)이라고 한다.

대지(大智)는 천지와 같으니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그 다음은 해와 달과 같으니 상현(上弦)과 보름, 그믐과 초하루의 이치가 있다.

또 그 다음은 귀신과 같으니 길흉화복의 길(道)이 있다.

만사(萬事)는 음에서 일어나서 양으로 퍼지니 먼저 음의 어둠을 살펴서 양의 밝음을 볼 것이다. 모든 일은 먼저 처음 시작한 곳을 보아야 하니 음에서 일이 일어나면 양이 밝아지고, 양에서 일이 일어나면 음이 숨는다. 반드시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하니 음양은 곧 물과 불일 뿐이다. 일용(日用) 사물의 기거(起居) 동정(動靜)이 이목구비의 총명한 도리에 있으니, 귀는 수(水)에 속하고 눈은 화(火)에 속함을 명백히 한 연후에 온갖 일을 알 수 있다. 수(水)가 화(火)에서 생기고 화(火)가 수(水)에서 생기며 금(金)이 목(木)에서 생기고 목(木)이 금(金)에서 생기는 그 쓰임(用)을 알 수 있는 연후에 바야흐로 신인(神人)이라 이를 수 있다.

음을 죽이면 양이 살고 양을 죽이면 음이 사니 생살(生殺)의 길은 음양에 있다. 사람이 능히 음양을 쓸 수 있는 연후에야 바야흐로 인생이라 이를 수 있다.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아니면 변화의 방술(方術)은 모두 신명(神明)에게 있으니 신명에 감통(感通)한 다음에 그 일이 성사되면 이를 대인대의(大仁大義)라고 이른다.

일에 결단이 있는 연후에 변화의 길이 있다.

춘하추동에서 가을은 의(義)가 되니 의는 곧 결단(決斷)이다.

육용(六用)은 삼덕(三德)이니 삼덕은 천덕(天德)과 지덕(地德)과 인덕(人德)이다. 통합(統合)을 대덕(大德)이라 한다.

덕의(德義)는 생살의 권세(權勢)가 있으니 생살은 음양이라 이 두 단서(端緒)를 알아야 한다.

천용(天用)과 지용(地用)과 인용(人用)은 강기(綱紀)를 고르게 함이니 하늘

과 땅을 통제한다. 이를 조화(造化)의 수단(手段)이라고 일컫는다.

이치가 비록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겉에서 나오고, 일용(日用)한 사물의 사이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연월일시(年月日時)와 분(分)과 각(刻)이 돌아가는 것은 이 모두 원형이정(元亨利貞)한 천지의 길(道理)이다.

천지의 용(用)은 어린 애를 배어 낳고 기름이니 허리띠와 갓을 씻고 건강하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어 장사(葬事)할 뿐이다.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 = 十二運)

양은 곧 수장(收藏)하는 곳이요, 장(藏)은 곧 용처(用處)를 남이니 그 수장과 출용지물을(出用之物)을 보아 내보내는 것이다.

사람이 이것을 쓰는 길(도리)이니 이것을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사람이 마음을 길러, 형상 밖으로 나타낸다. 그것을 알게 됨에 따라 유익함이 무궁하여 자연심(自然心)이 절로 열린다.>

(※ 원문의 옮김(翻譯)은 필자가 하고, 그 감수(監修)는 일묵(一默) 립영창 교수가 하였음. 옮김의 잘잘못은 모두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則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
 事有決斷然後 有變化之道也
 春夏秋冬秋爲義 義則決斷也
 六用三德 三德則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
 德義有生殺之權 生殺則陰陽 知此兩端而已
 天用地用 人用之 調理綱紀 統制乾坤 此之謂造化手段也
 理雖高 出於太極无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
 養則收藏處 藏則出用處 觀其收藏出用之物 以致出也
 人而用之之道 捨此而何以也
 人而養中 出而形外 因其己之知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⁵⁹⁾

음양경(陰陽經):

<하늘은 안정되고 땅은 순종하며,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이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으니 암컷은 음이요 수컷은 양이다. 안이 있고 밖이 있으니 안은 음이요 밖은 양이다.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니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숨김이 있고 나타남이 있으니 숨음은 음이고 나타남은 양이다. 앞이 있고 뒤가 있으니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땅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아래에 펼침이 없고, 땅은 천공(天功)이 없으면 그 위에 이름이 없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萬象)이 갖추어진다.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신명(神明) 신명 천지 신명이시여! 내려 보시고 굽어 살피시면 명을 받들어 근본되는 성인(聖人)과 철인(哲人)의 소원을 성취(成就)케 하소서.>

(※ 원문의 옮김(翻譯)은 필자가 하고, 그 감수(監修)는 일묵(一默) 립영창 교수가 하였음. 옮김의 잘잘못은 모두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59) 같은 책, 제생: 43, p. 309

(乾定坤順乾陽坤陰日行月行日陽月陰有神有人神陰人陽有雄有雌雌陰雄陽
 有內有外內陰
 外陽有右有左左陰右陽有隱有顯隱陰顯陽有前有後前陽後陰天地之事皆是陰
 陽中有成萬
 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天無地化無布於其下地無天功無成於其上天地和而萬物暢天地安而萬象具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
 明俟人人俟
 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
 神明神明天 地諸神明下鑑垂察奉命身太一聖哲所願成就.)⁶⁰⁾

이 글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덕으로서 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미 앞의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 사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과 땅, 해와 달, 덩고 추움,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밝음과 어두움, 흙수와 짝수, 군주와 백성, 군자와 소인, 높은 것과 낮은 것,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강건한 것과 온순한 것,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 퍼지는 것과 움츠려드는 것,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 등은 각각 양과 음의 표상이며,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음양의 변화로서 생긴다는 것이다.

주렴계(周濂溪)가 『태극도설』과 <주희의 주>에서, 태극이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과정의 원류가 된다고 한 설명과 증산이 말하고 있는 사상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여기에 인용한다.

“무극(無極)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진다. 고요해져 음을 낳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이 서로 그 근거가 된다. 양으로 나누어지고 음으로 나누어져 양의(兩儀)가 정립된 양이 변화하고 음이 합하여 수, 화, 목, 금, 토를 낳는다. 오기(五氣)가 고르게 퍼져 사시가 운행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무극에 근본한다. 오행은 생겨날 때에 각각 그 성품을 가진다. 무극의 진체(眞體)와 이오(二五: 음양오행)의 정수가 묘합(妙合)하여 응결되어 건도(乾道)는 남성적인 것을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성적인 것을 이룬다.

60) 같은 책, 교운: 2-2, pp. 206~207

이기(二氣)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한다.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변화가 무궁하다. 사람만이 오행의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영묘한 존재가 되었다. 형체가 이미 생기자 정신에서 지혜가 나왔다. 오성(五性)이 감동하여 선악이 나누어지고, 만사가 그로부터 나온다. 성인은 그것을 중정(中正)과 인의(仁義)로 정리하면서도 고요한 것을 위주로 하여 인극(人極)을 세웠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한다. 군자는 그것을 닦아서 길하고, 소인은 그것을 거슬러서 흉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고 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와 강이라고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과 의라고 한다」고 하였고, 또 「처음을 더 들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안다」고 한 것이다. 크도다 「역」이여! 이것이 그 지극한 것이다.”⁶¹⁾

“무극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모습이나 형체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 있기 전에도 있고, 사물이 있고 난 후에도 있지 않은 적이 아직 없었고, 음양의 바깥에 있고, 아직 음양의 속에서 행해지지 않은 적도 없어서 전체를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으면서도 또한 처음부터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없는 것이다.”⁶²⁾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주 만물의 근본은 무극, 태극이며, 기본 범주는 음양, 오행, 천, 지, 인이다. 대순 사상도 음양과 오행이 모두 태극에서 나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태극은 무극에서 근본한다. “지혜는 천지와 더불어 같고, 봄·여름·가을·겨울의 기운이 있다. …”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라고 한 말은 음양오행이 모두 기(氣)임을 보여준다.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에 변화의 길(道理)이 있다”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는 말에서와 같이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에 변화의 길이 열려서 물, 불, 나무, 쇠, 흙의 다섯 가지가 생기고, 그 다섯 가지의 기가 두루 사방에 퍼져서 사계절이 만들어진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에서 출발한다. 건의 도는 남성적

61) 주립계 『태극도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62) 『주자 註』, “謂之無極, 正以其無方所形狀, 以爲在無物之前, 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 以爲在陰陽之外, 而未嘗不行於陰陽之中, 以爲通貫全體, 無乎不在, 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

인 것을 만들어 내고, 곤의 도는 여성적인 것을 만들어 내고, 이 두 기가 서로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시키고, 만물은 생성하여 변화가 무궁무진해지는 것이다.

또 “물은 불에서 낳고, 불은 물에서 낳고, 금은 나무에서 낳고, 나무는 금에서 낳으니 그 쓰임을 능히 알고 난 다음에 바야흐로 신인(神人)이라고 할 수 있다.”, “... 모두 이는 음양 중에 만물의 이치가 이루어지고, 모두 이는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화하여 신인을 이름으로써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 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라고 하였다. 이것 또한 음과 양이 덕으로써 화합할 때 모든 만물이 그 이치를 따라서 생성하고 변화하여 신인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 『주자』도 <주(註)>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양이 변하여 음과 합하여 처음에는 물과 불을 낳는다. 물과 불은 기로서 흙을 움직이고 번쩍여 타기 때문에 그 체는 허하고 형체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그 다음은 나무와 쇠를 낳는데 그것은 확실히 정해진 형체가 있다. 물과 불이 처음이고, 그곳에서 나무와 쇠가 생겨나는 것은 모두 흙에 근거하고 있다.”⁶³⁾

“물의 바탕은 음이지만 그 성질은 본래 양이다. 불의 바탕은 양이지만 성질은 음이다. 물의 바깥은 어둡지만 속은 밝기 때문에 물은 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의 바깥은 밝지만 속은 어둡기 때문에 불은 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태극도의 양의 움직임 가운데 검은 바탕이 있고 음의 고요함 가운데 흰 바탕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⁶⁴⁾

“금, 목, 수, 화는 각각 춘, 하, 추,冬の 사계절에 나누어져 속하는데 토는 사계절이 각각 잘 돌아가게 하는 데 놓여져 있다. 오직 여름의 18일에 토기가 가장 왕성하다. 도상으로 따져 본다면 목이 화를 낳고 금이 수를 낳는 등의 것들은 작은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나,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얻는 것은 오로지 토가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나머지는

63) 『주자』<註>, “陽變陰合, 初生水火, 水火氣也, 流動閃爍, 具體尙虛, 其成形猶未定, 次生木金, 則確然有定形矣, 水火初是, 自生木金, 則資於土.”

64) 『주자』<註>, “水質陰而性本陽, 火質陽而性本陰, 水外暗而內明, 以其根於陽也, 火外明而內暗, 以其根於陰也, 太極道陽動之中有黑底, 陰靜之中有白底是也.”

모두 옆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⁶⁵⁾

위 인용문은 무극의 참됨과 음양오행의 순정한 기운이 묘합하여 응취하며, 남성적인 성질을 가진 건도와 여성적인 성질을 가진 곤도의 기가 교감해서 춘하추동을 비롯한 만물을 화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대순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또 대순 사상은 『대순지침』에서,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⁶⁶⁾고 말한다. 이것은 『주역』 <계사전>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이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변동은 음양의 유행과 소장(消長: 줄어 들고 늘어남) 아닌 것이 없고,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며, 이것을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극은 전체로서의 일(-)이고, 음양은 전체인 일의 나눔이다. 나누는 것으로 말하면 음양의 대립이고, 전체로서 말하면 ‘일’에 통합된다. 우주 만물은 모두 이러하여 각각 대립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통일상을 가진다. 이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진다”(物物各一太極)이며,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이치가 비록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곁에서 나오고, 일용한 사물의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음과 양이 결합함에 있어서는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매개로 하여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의 지극한 진리는 인간의 덕행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언사나 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계사전>에 건은 역지(易知)요, 곤은 간능(簡能)이라 하고 “역간(易簡)하기에 천하의 이치를 모두 깨닫는다”는 말이나, “괘·효의 변통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명날 수 있는 소지는 바로 그 사람의 덕행에 있다”고 한 말이나, “역간의 좋은 점은 지극한 덕과 짝을 이룬다”고 한 말은 모두가 역

65) 『주자』 <註>, “金木水火分屬春夏秋冬, 土則寄旺四季, 惟夏季十八日土氣爲最旺, 以圖象考之, 木生火, 金生水之類各有小畫相牽聯, 而火生土, 土生金獨穿乎土之內, 餘則從旁而過爲可見矣.”

6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의 진리가 한갓 천지 건곤에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마음, 덕행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이런 말들 모두가 음양 감응에는 반드시 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증산이 천지공사에서 말하는 우주관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신화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론과는 다른 것이다. 증산이 제시한 우주관은 우주를 포괄함과 동시에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종교적 사유이다. 즉 증산의 우주관은 우주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유이고, 이상적 사회 건설(후천 선경)을 위한 관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창조설,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발생적 무시무종설, 또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발생설 등과는 달리 증산은 우주를 자연법칙에 따라 생긴 것으로 인정하고 우주가 어떤 질서있는 법칙에 따라 성(成)하고 쇠(衰)하는가를 밝히는 자명설(自明說)을 밝히고 있다.⁶⁷⁾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우주 만물이 무이위화(無而爲化)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되어 성쇠(成衰)하고 소장(消長)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상은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에서 하늘을 체(體)로 하고, 천일(天一)·지일(地一)·인일(人一)을 용(用)으로 하는 체일용삼(體一用三)·집일함삼(執一含三)·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삼신일체(三神一體) 원리와 “일석삼극무진본(一析三極無盡本)”이라 하여 천·지·인의 삼신일체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주의 법칙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수란 우주의 질서와 운동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를 천지도수라 한다. 천지공사의 우주관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순환하는 것이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증산은 천지 도수는 인간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증산은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67) 장병길, 대순종교사상(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p. 47

되리라”⁶⁸⁾ 하였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뜻은 일정한 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역』에서도 영허소장(盈虛消長)하는 만물에서 불변의 측면을 발견한다. “천지의 도는 항구하여 그침이 없다” (天地之道 恒久而不已)는 것이 그것이다.⁶⁹⁾ 천지의 도가 항구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 불변하다는 뜻이 아니다. 정자(程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따라서 항구(恒久)하여 막히지 않는다. 항구하다는 것은 일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하면 항구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변역(變易)함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길이다.”⁷⁰⁾

정자는 천지의 도를 천하의 이(理)로 바꾸어 풀이 한다. 그것은 그가 인사의 의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바뀐다(隨時變易)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사의 의리도 자연에 근거한다. 천지가 항구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기(終則有始) 때문이다. 즉 『역』에서 말하는 항구는 끊임없이 변통하여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⁷¹⁾ 그러므로 『역』의 우주 및 세계관에서는 종말이 없는 것이다. 기제괘(既濟卦) 다음에 미제괘(未濟卦)를 두어 끝맺은 것은 자연에 종말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⁷²⁾ 변통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서 천지의 항구는 종시론(終始論)으로 전개된다.⁷³⁾ 이러한 사상은 증산의 천지 도수와 같은 의미가 된다.

6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공사: 2-24, p. 124

69) 『주역』 <恒·象>.

70) 같은 책, <程傳>, “天下之理 未有不動而能恒者也 動則終而復始 所以恒而不窮 ... 故恒非一定之謂也 一定則不能恒矣 唯隨時變易乃常道也.”

71) 박신환, 앞의 책, pp. 83~85

72) 『易』에서 始終이라 하지 않고 終始라 한 것은 『易』의 圓道周流를 의미한다.

73) <序卦傳>에서 未濟를 64괘의 마지막에 놓은 까닭에 대해 “물은 막힘이 있을 수 없는 까닭에 未濟를 두어 끝마쳤다” 고 하였다. 기독교적 우주 및 세계관의 바탕에는 종말론이 있다. 그런데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복이 있었다. 대체로 종말론의 후퇴는 현 체제의 승인과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말론이 후퇴할 때는 일반 윤리가 전면에서 크게 나서게 된다고 한다(H. Conzelmann, Die Mitte der Zeit, 1960, pp. 87~92

그러나 천지 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시대에는 천지 도수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요.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이 말은 도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으며,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으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⁷⁴⁾

증산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고 후천의 선경을 열겠다고 하였다.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하여 선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造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⁷⁵⁾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⁷⁶⁾

7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권지: 1-21, p. 271

75) 같은 책, 공사: 1-3, p. 98

76) 같은 책, 공사: 3-5, pp. 130-131

위의 인용문은 선천시대를 진단하고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파한 것이다. 먼저 증산은 선천시대는 원한이 너무나 커서 삼계에까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선천시대에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 등 삼계가 원한으로 맺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 사회는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천지 도수를 바로 세워서 상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샷 틈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당하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⁷⁷⁾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⁷⁸⁾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이니라.”⁷⁹⁾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선기 옥형(璿璣玉衡) 도수를 정하시니 신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황용종의 집에 추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끈도수를, 그리고 신경수의 집에 일월 대어명 도수(日月大御命度數)를 문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天地大八門) 도수를 정하고 이 세 종도의 집에 밤낮으로 번갈아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셨도다.”⁸⁰⁾

증산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천지 도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하였다. 신도를 조화할 수 있는 천지 도수, 예를 들면 ‘선기옥형도수’ ‘저울 갈고리도수’ ‘추도수’ ‘끈도수’ ‘일월대어

77) 같은 책, 공사: 3-37, p. 147

78) 같은 책, 교법: 3-4, p. 245

79) 같은 책, 공사: 1-3, p. 98

80) 같은 책, 예시: 31, p. 319

명도수' '천지대팔문도수' 등을 행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이와 같이 증산의 우주관은 개혁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천개벽(先天開闢)이 아니라 후천개벽에 더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 선천개벽 세상인 선천세계는 무(無)에서 유를 창조하여 이를 성장시켜가는 생장(生長)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세계 각지에 팽배한 말세적 현상이나 핵무기의 공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천세계는 음양의 분화(分化)와 다양한 존재의 갈등, 투쟁 대립 등으로 이제 그 종국에 이른 음양 배덕(背德) 음양 분덕(分德)의 세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후천시대에는 음양의 배덕과 분덕으로부터 파생된 혼미의 세계를 선경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이상향(理想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 쓸 지어다.”⁸¹⁾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 하느니라.”⁸²⁾

위 인용문은 천지정위(天地定位)를 말한다. 『주역』 <설괘전>에서 천지(天地), 뇌풍(雷風), 수화(水火), 산택(山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를 천지정위, 산택통기(山澤通氣), 뇌풍상박(雷風相薄), 수화불상사(水火不相射)라 하여 그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 관계에 따라 변화가 생기고, 변화로 인하여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⁸³⁾ 그러므로 인간

81) 같은 책, 예시: 30, p. 319

82) 같은 책, 교법: 1-62, p. 232

83) 박신환, 앞의 책, pp. 90~93

에게 있어서는 하늘만 높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과 똑같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물이 생성 발전하지 못하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합덕이 잘 되어야 우주 만물이 제대로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천지정위’란 천지가 위를 정한다는 뜻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의 위치가 정하여진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늘어 놓으니 귀하고 천한 것의 위치가 정해진다”(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⁸⁴⁾는 말과 관련된다. ‘천지 정위’를 인간의 일에 적용한 것은 가인괘(家人卦)이다. 천지는 건곤이고 건곤은 부모이니, 각기 안팎에 정위(正位)함으로써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며, 그 결과 천하가 안정된다. 그래서 가인괘 <단사>에서 “남녀의 바른 것이 천지의 큰 뜻”(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天地之大義也.)이라고 하였다.

‘뇌풍상박’의 상박(相薄)은 불상괘(不相悖) 또는 상여(相與), 상감(相感)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폭풍은 번개를 동반하고 번개는 폭풍을 수반해야 위엄이 크다. 뇌성 벽력이 없는 폭풍이나 마른 번개는 불길하게 여겨질 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잘 어울려서 어긋나지 않는다.⁸⁵⁾ 천지가 항구한 까닭은 천과 지가 서로 감응하기 때문이다. 인간사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남녀, 즉 음양이 서로 감응하고 덕으로 화합할 때 그 부부 관계는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익괘에서는 “하늘은 베풀고 땅은 낳으니 그 유익함이 끝이 없다”(天施地生 其益无方)고 하고, 유익한 까닭은 “때와 함께 나아가기”(凡益之道 與時偕行) 때문이라고 한다.

‘수화불상사’의 불상사(不相射)는 상체(相逮)로도 표현되며 이는 상제(相濟)의 뜻을 지닌다.⁸⁶⁾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相待的) 존재이기도 하다.

‘산택통기’는 산의 우로(雨露)는 물이 되어 산 아래 연못을 채우고, 연못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다시 비와 이슬의 상태로 산에 내려 온갖 초목을

84) 『周易』 <繫辭傳>

85) 『周易』, <說卦傳>

86) 山下靜雄, 周易十翼ノ成立と展開, p. 137. 射는 厭의 뜻이고, 逮는 及의 뜻이다. 相逮는 적극적 표현이고 不相射는 소극적 표현이다. 이 말들은 <설괘전> 참조.

키운다⁸⁷⁾는 말을 의미한다.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감화시켜 천하가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다. <합괘 상사(象辭)>에 “그 감응하는 것을 보아서 천지 만물의 성질을 알 수 있다”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고 하였다. 그리고 산택 음양 이기(二氣)가 감응하여 서로 조화로움을 이루는 까닭은 유음녀(有陰女)가 위에 있고 강양남(剛陽男)이 아래에 있으며, 아래의 강양남은 독실하고 참되며 굳세고 은근하고, 위의 유음녀는 화기 가득한 기쁨으로 서로 감응하기 때문이라 한다. <단사(象辭)>에서는 “천지가 감응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화하면 천하가 화평하다”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고 했다.

결국 증산이 말한 것처럼 천지가 다같이 화합하여 성공하고 만물이 그 이치대로 조화롭게 함덕하면 큰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수명이 길어 창성하게 된다는 말과 그 이치가 같다 하겠다.

“또 한 번은 음양(陰陽) 두 글자를 써서 약방 윗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백지를 덧붙이고, 「누가 걸리는가 보라」 하시니라. 한참 후에 「나약한 자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도다.”⁸⁸⁾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 「건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⁸⁹⁾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

87) 『易』에서 山(艮)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說卦傳>에서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이라 했고, 『중용』 26장에서는 “今夫山一卷石之多及其廣大 草木生之 禽獸居之寶藏興焉”이라 했으며, <艮卦>에서는 時中을 말하고 있다.

8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행록: 4-33, p. 71

89) 같은 책, 공사: 2-16, pp. 120~121

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 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리하였노라」 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 고 말씀하셨도다.”⁹⁰⁾

이 글은 천지의 도수는 모두가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 구성되어 유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우주 만물의 본성 속에 들어 있으며,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증산은 음이 양을 누르거나 양이 음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상태에서의 교감은 진정한 감응을 일으킬 수 없으며 오히려 참혹한 결과를 초래시킨다 말하고 있다.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거나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인운(網繹)이 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고 불녕(不寧)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은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건곤, 음양이 각자 지니는 바른 덕이요, 양이 음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된다는 것이다. 립영창(林泳暢) 교수도 “음과 양의 양의(兩義)가 합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 음 따로 양 따로 라든지 음과 양이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증산 상제께서 가르치신 바 정음 정양이라야만 음양합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⁹¹⁾ 라고 하였다. 음양이 각기 지니는 바른 덕이란 건의 ‘역지(易知)’ 와 ‘대생(大生)’, 곤의 ‘간능(簡能)’ 과 ‘광생(廣生)’, 건의 ‘확연(確然)’ 과 곤의 ‘퇴연(隕然)’ 의 자세를 말한다.⁹²⁾ 또한 건은 만물의 ‘자시(資始)’ 요, 곤은 만물이 ‘자생(資生)’ 하는 바이며, 천은 베풀고(施), 지는 키운다(生). 모든 교감의 궤에서 겸도(謙道)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본다.⁹³⁾ 이

90) 같은 책, 공사: 2-17, p. 121

91) 립영창, 「내가 본 대순진리회」: -4대종지는 오늘의 지도원리-, 대순회보: 22호 (경오년, 11월 30일), p. 13.

92) 박신환, 앞의 책, p. 107

93) <象辭>에서는 또 “上火下澤睽 君子以同而異” 라 하였다

러한 겸도가 곧 정대라고 한다.

정음정양이란 첫째, 음양의 교감이 1 대 1의 동등한 관계를 가짐을 말한다. 즉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빠져야 하고, 한 사람이 가면 친구를 얻게 된다. 이는 하나됨을 말한다”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言致一也.)⁹⁴⁾고 했다. 『전경』 <공사: 2-16.>에서 증산은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 …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 …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 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고 하시고 …”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관계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음양의 교감은 정당한 만남을 가짐을 말한다. 남편이 부정하다던가 아내가 부정해서도 안된다. 정당한 사람에 의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산은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이니 죄가 워낙 크므로 내가 관여치 않노라” 하였다. 『주역』 <대과괘(大過卦)>에, “마른 버드나무에 새싹이 돋는다.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얻었다.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얻은 것은 분수를 넘어서 서로 만난 것이다” (枯楊生梯 老夫得其女妻 象曰老夫女妻 過以相與也.) 라고 하였으며, <구오효(九五爻)>에, “마른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얻었으니 이 또한 추한 일이다” (枯楊生華 老婦得其士夫 象曰枯楊生華 何可久也 老婦士夫亦可醜也.) 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모두가 하나같이 정당치 못한 만남을 비판하고 있다.

셋째, 우주 만물은 다 음양합덕에 의해 생성 변화함을 말한다. 여기서의 음양합덕은 바로 정음정양을 의미한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고 생성 소멸하며, 하늘과 땅의 교감에서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나며, 만물이 그것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감에는 반드시 그 움직임이 바르고 큼에 있다는 것이다. 천도의 음양은

94) 『周易』, <繫辭傳>

인도의 인(仁)이며, 일음일양의 도(道)도 따지고 보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렴계(周濂溪)는 『통서(通書)』 <순화(順化)>에서 “하늘은 양으로써 만물을 낳고 음으로써 만물을 키운다. 낳는 것은 인(仁)이요 키우는 것은 의(義)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윗자리에 있을 때 인으로 만물을 기르고 의으로써 만민을 바르게 지도한다. 천도가 운행하니 만물이 순조롭게 자라고, 성덕(聖德)이 쌓이니 만민이 절로 교화된다”(天以陽生萬物 以陰成萬物 生仁也 成義也 故聖人在上 以仁育萬物 以義正萬民 天道行而萬物順 聖德修而萬民化.)라고 하였다.

또, 증산은 “... 그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짚신을 원평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등에는 각기 「음양(陰陽)」 두 글자를 쓰셔서 불사르시니라”,⁹⁵⁾ “...배은망덕 만사신일분명 일양시생(背恩忘德萬死神一分明一陽始生)...작지불지성의웅약일음시생(作之不止聖醫雄藥一陰始生)...”,⁹⁶⁾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니라”⁹⁷⁾,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陰德)에 힘 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⁹⁸⁾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⁹⁹⁾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¹⁰⁰⁾ “인간이 지향하는 정신과 육체, 이상과 현실, 그리고 사랑과 미움,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합덕으로 이를 때 인격은 완성되고 행복은 도래하고 인류의 이상인 선경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이상과 같이 대순 사상의 주류는 음양합덕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제로 생기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

95) 같은 책, 공사: 2-1, p. 113

96) 같은 책, 공사: 3-9, p. 132

97) 같은 책, 교법: 1-24, p. 225

98) 같은 책, 교법: 2-18, p. 237

99) 같은 책, 교법: 2-20, p. 237

100) 같은 책, 교법: 2-56, p. 244

101) 林泳暢, 앞의 글, p. 13

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 사상이다.

4.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음양합덕

음양합덕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바람직한 조화와 교화, 그리고 덕을 닦음으로써 치화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 될 수 있다. 대순 진리에서의 설파한 만민 교화 사상인 음양합덕 사상, 곧 구원 사상이 동양 사상에서는 어떠한 사상적 연관 관계를 갖게 되는지 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장자』 <재유(在宥)>편에서는 “천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말이 있다. 천지인을 동등한 하나로 본 우리의 전통 사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역시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 한편 『좌전』에서 “작더라도 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작은 쪽이 정의롭고 큰 쪽이 불의한 경우 뿐이다. 무릇 도(道)란 민중과 친화하고 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민중과 친화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민중의 이익을 생각함을 말하며, 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함은 축원하는 사람(祝)과 신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史)이 제문(祭文)을 정직하게 지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백성은 굶주리고 축(祝)과 사(史)는 거짓을 늘어 놓으면서 신을 제사하고 있다. 따라서 초(楚)나라를 공격하면 안된다” 고 한 말이나, “무릇 민중은 신의 주(主)이다. 그러므로 옛 성왕은 먼저 백성에게 넉넉하게 해준 다음 신에게 정성을 쏟았다. … 3시(時)에 힘쓰고, 5교(教)를 익히며, 9족(族)과 친화한 다음에 신을 제사하는 법이다” 고 한 말은 모두 인간 존중 사상

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 사상은 역사의 발전 과정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증산은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 라고 하였다. 또 인존시대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늘은 도이므로 인간은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품성을 갈고 닦아 존엄했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인 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의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구원의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말들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음양이 조화롭게 교감하고 합덕할 때 이루어진다고 대순 사상은 한결같이 말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하늘과 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신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천지일월의 주인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한다.

이처럼 대순의 사상은 곧 인간 존엄성의 사상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고,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접하며,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인간을 목적시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음양합덕 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음양합덕은 다시 양과 음의 조화에서 출발한다. 양은 화하며 적극적이고 밝은 기를 말한다. 음은 순하며 소극적이고 어두운 기를 말한다. 인간에 있어서 남성을 양이라 하고 여성을 음이라 하며 자연에 있어서 천(天)을 양이라 하고 지(地)를 음이라 한다. 이 두 가지 음양이 오행과 더불어 상생·상극·전화(轉化)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가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이러한 우주관을 바탕으로 천지와 인간의 조화와 화합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순사상이다. 대순 사상은 곧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음양합덕을 통한 인간 구원을 제1의 위치에 두었다. 이에 대한 전거를 들어가며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대순 사상은 『고견원려왈지』에서, “지혜란 천지와 같으니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 또 그 다음은 귀신과 같으니 길흉화복의 길(道)이 있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서괘전」에서 “천지가 있는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는 연후에 부부가 있고 …” 라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 『고견원려왈지』에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서 양으로 퍼지니 먼저 음의 어둠을 살펴서 양의 밝음을 볼 것이다. 모든 일은 먼저 처음 시작한 곳을 보아야 하니 음에서 일이 일어나면 양이 밝아지고, 양에서 일이 일어나면 음이 숨는다. 반드시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하니 음양은 곧 물과 불일 뿐이다”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라고 하였다. 이 말은 『주역』에서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은 천지고, 하늘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해와 달, 바람과 우레고, 지상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산과 못이고,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물과 불이다. 옛 사람이 이 여덟 가지로 우주의 근원을 삼았다. 그래서 이를 팔괘로 배치하였다”고 하여 우주 만물의 기본 원소를 8가지로 보았음에 비해 우주의 기본 요소를 두 가지로 집약시킨 것은 주역 사상을 앞선다 하겠다.

그리고 천지에서 파악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현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지는 소식영허(消息盈虛)한다.

“천지는 찻다가 비고, 때에 따라 줄어들고 늘어난다”(豐象). “줄어들고 늘어남, 차고 비는 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剝象). 소식의 현상을 잘 보여 주는 예는 태양이다. 낮과 밤의 길이, 음과 양의 량(量)은 계절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고견원려왈지』에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라고 하여, 모든 변화는 음양의 상합과 신인 화합, 그리고 합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대순 사상은 또 『고견원려왈지』에서 “연월일시와 분(分)과 각(刻)이 돌아가는 것은 이 모두 원형이정(元亨利貞)한 천지의 길이다”(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천지의 운행 법칙을 말하며, 여기서 원은 만물의 시초를 말하고, 형은 만물의 성장을 말하고, 이는 만물의 완수를 말하고, 정은 만물의 완성을 말한다. 주희 역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이상향을 만들하고자 하는 대순 사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희는 말하기를, “원은 만물의 태어남이요, 형은 만물의 창무함이요, 이는 열매가 익어감이요, 정은 그 열매가 이루어짐이다. 열매가 다 익으면 그 뿌리와 꼭지가 떨어지는데 이를 다시 땅에 심어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이정 사이에 생기가 유행하여 처음부터 간단함이 없으니 이것이 원이 나머지 덕을 포함하여 통천하는 까닭이 된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원형이정은 그대로 사계절에 해당된다. 자연계에서의 가장 뚜렷한 변화인 사계절의 운행이 천지의 운행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오는 것이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의미한다. 원시반본이란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짐을 의미한다. 대순 사상의 도는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이며, 천지일월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운동을 스스로 무한히 반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은 선천의 분열 과정을 종결짓고, 후천의 낙원세계, 즉 자연세계와 인간이 상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완성시키는 통일의 길을 말한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변화 생성하게 함은 천과 지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化生)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운의 상호 조화와 합덕에 의한 교감에 의해 가능하다. 합덕 교감에 의한 소통이 이루어짐은 좋은 낙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만약 교감은 하되 덕으로 합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질곡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주역』은 모든 우주 만물의 변동 변화 과정을 대립적인 두 성질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한 대립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음(陰: --)이고, 그것의 다른 하나는 양(陽: —)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과 일의 형세가 이 두 가지 음과 양의 결합, 즉 합덕(合德)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 대순 사상의 『음양경』에서는 “...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神人)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萬象)이 갖추어진다. ...” (…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天地和而萬物暢天地安而萬象具. ...)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합덕 교감이 음과 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체의 생성이 대립자들의 만남에서 비롯됨을 말한다. 「계사전」에서도 “강과 유가 서로 밀어대니 변화가 생긴다”, “굴신(屈伸)이 서로 감응하니 이로움이 생긴다”, “애오(愛惡)가 서로 공격하니 길함과 흉함이 생긴다”, “참과 거짓의 만남에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생긴다” 등은 모두 대립자 상호간의 만남, 합덕 교감에 의하여 새로운 요인이 생김을 말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대순 사상이나 주역 사상을 막론하고 건과 곤의 사이가 태극이며, 음이 쌓여 있는 그 아래에서 하나의 양이 다시 생긴 것은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원시반본에서처럼 거의 멸식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대순 사상은 『고견원려왈지』에서, “그것을 알게 됨에 따라 유익함이 무궁하여 자연심(自然心)이 절로 열린다” (因其己之知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연의 마음은 멸절이 없는 끊임없는 생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또 생명 창달, 생명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대순 사상에서 양은 사람이며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양을 사람 대신에 군

자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대순 사상은 생명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또 대순 사상은 『고견원려왈지』에서나 『음양경』에서, 음양이 서로 합할 때 변화의 도(道)가 생기고, “육용(六用)은 삼덕(三德)이니 삼덕은 천덕과 지덕과 인덕이다. 통합을 대덕(大德)이라 한다” 고 하면서 우주 만물이 모두 대덕으로 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계사전」에서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 이것을 일러 도(道)라 한다. 이 도를 계승하는 것이 선(善)이요, 이 도를 내재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성(性)이다. 마음이 어진 자는 이 자연의 도를 보고 인(仁)이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보고 지(智)라 한다. 보통 사람은 날마다 이 도에 따라 살면서도 이를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군자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도는 인(仁)에서 드러나고, 일상 생활 속에 깃들여 있다. 만물을 고무 진동하게 하지만 성인과는 달리 아무 근심도 없다. 그 성대한 덕과 큰 사업이 참으로 지극하다. 성덕(盛德)이라고 하는 까닭은 날로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요, 대업(大業)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일이 천지 안의 모든 만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낱고 또 낱음을 역(易)이라 한다”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至矣哉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라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생명의 창화, 창달은 천지·건곤·음양의 합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변화는 대립되는 두 성질의 밀고 당김에 의하여 발생한다. 강유가 서로 밀고 당김에 의하여 변화가 생기고, 강유가 서로 밀고 당기면 그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의 강유는 건곤·음양·합덕을 의미한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열림, 이를 변화라 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천지일월이 춘하추동과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시 운동을 스스로 무한히 반복하도록 한다.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서 양으로 퍼지니 먼저 음의 어둠을 살펴서 양의 밝음을 볼 것이다. 모든 일은 먼저 처음 시작 한 곳을 보아야 하니 음에서 일이 일어나면 양이 밝아지고, 양에서 일이 일

어나면 음이 숨는다. 음을 죽이면 양이 살고, 양을 죽이면 음이 사니 생살의 길은 음양에 있다.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도)이 있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이 갖추어진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음양합덕 사상의 의미이며, 인간 구원의 길인 셈이다.

『논어』 <양화>편에서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장은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체가 아님이 없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하늘은 도이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은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만물의 운행과 생장은 천리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도를 따라 행동해야 함을 말한다 하겠다.

동양의 사상이나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천지의 뜻이라 함은 음양의 상서로운 조화를 말하며 이는 곧 음양합덕을 통한 조화의 경지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인위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며, 고의로 생명을 해치지 말며, 이득으로 명예를 손상하지 말라. 자연의 성품을 삼가 지켜서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참됨에 돌아가는 것이라” 고 한 장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매사에 지극한 마음을 가져 하늘의 도를 따라 행동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면 자연스러운 음양합덕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민주주의와 음양합덕 사상

1. 민주주의의 개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진보라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

가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어떤 기준이 되는 개념도 없으며, 정확하고 명확한 대상이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 속에 넣어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회적 사물 꾸러미를, 약간의 교묘한 처리를 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a kind of conceptual Gladstone bag)”¹⁰²⁾과 같은 것으로서 다의적(多義的)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되고 있다.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 때로는 저항(抵抗)의 상징으로, 때로는 지배(支配)의 상징으로 조작,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생겨났다. 그리이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가 민중이나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정부나 권력을 뜻하는 Kratos를 결합하여 Demokratos를 만들어 냈으며, 이 Demokratos가 변형 발전되어 Democracy가 되었다. 어의대로 해석하면 「인민의 지배」·「인민의 통치」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원을 그리이스 아테네의 도시국가(Polis)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Pericles)는 기원전 431년에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의 제도는 민주주의다. 왜냐 하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 지배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은 모든 사적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우리의 여론은 모든 성취에 있어서 재능을 환영하고 귀하게 여긴다. … 단지 그 우수성이라는 기준으로 … 우리 시민은 사적 및 공적 의무에 충실하며, 그들의 국가(도시)에 관한 지식에 대해 이리쿵 저러쿵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법이든 토의를 거치지 않은 집행을 하면 실패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정책 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몸소 참여하여 토의·결정한다.”¹⁰³⁾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대 그리이스의 시민들은 ① 그들의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나 법률 앞에 있어서 평등하였고, ② 총회(總會)에

102) Carl L. Becker,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 Press, 1941), pp. 4~5; 楊茂木 역, *현대민주주의*(서울: 거목, 1987), p. 14

103) Thucydide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edited and translate by Sir Richard Livingston, “World’s Classics,” 1951, pp. 111~113

서 공공문제를 토론하고 토의하였으며, 다수결투표에 의해 어떤 문제를 직접 결정하여 타인들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였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을 선출하였으며, ③ 비판·반대의 권리를 포함하는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였으며, ④ 법률에 대한 존중과 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의해 참주정치(僭主政治, tyranny)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여자와 다수의 노예들은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바탕이 된 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리이스의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그 성장을 계속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제 정치와 과두 정치를 거부하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한 걸음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오랜 세월과 많은 시련 끝에 드디어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는 사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토스의 시대 이래로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 있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¹⁰⁴⁾라고 하여 국가 또는 정치 형태를 중심으로 보았고, 카알 엘 벡커(Carl L. Becker)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로 정치 형태와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이다”¹⁰⁵⁾라고 하여 정치 형태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존 듀이(John Dewey)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 형태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공동생활의 하나의 양식이며, 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태도이다”¹⁰⁶⁾라고 하여 생활 양식으로서의 목적과 내용으로 보았고, 어

104) James Bryce, *Modern Democracies*(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1), Vol. I, p. 29

105) 楊茂木 역, 앞의 책, pp. 15~16

네스트 바이커(Ernest Barker)는 “인간 정신의 활동적 원리이며, 자유로운 정신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원리이다”¹⁰⁷⁾라고 하여 행동단위로서의 인간 존중의 정신 원리로 보았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말의 해석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정치의 하나의 방식, 즉 제도, 형태, 방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실현되어져야 할 정책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 형태 또는 정치 제도로 본다면, 그와 같은 정치 형태와 제도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정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 정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민주주의를 그 실현될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정책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 정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 형태와 정책 내용이 다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는 이념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그 설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이론적 개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며, 어떤 특수적 상황이나 조건하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적 개념이란 순전히 사변(思辨)의 작용으로서 추상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진 개념이란 뜻이며, 보편적 개념이란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의 개별적이며 특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무릇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성품과 추구하는 생활에 타당성을 갖게 하는 원리를 뜻한다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개

106) John Dewey, “존 듀이의 회답,” 李克燦 編, 民主主義(서울: 종로서적, 1987), pp. 235~243

107) Ernest Barker, *The Citizens Choice*(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38), pp. 5~28

념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레자이(M. Rejai)가 분류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⁸⁾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개념 정의이다. 규범적 개념이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부 형태나 정치 제도로 보지 않고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나 한 사회의 궁극적 이상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고전적인 정치이론가들에 의하여 표명된 이상주의적 정치관이다.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성’, 루소(J. J. Rousseau)의 ‘일반의지’, 밀(J. S. Mill)의 ‘자유’, 제퍼슨(J. Jafferson)의 ‘천부인권’ 등의 사상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중 가장 전투가 심했던 게티즈버그에서 행한 추도연설(Gettysburg Address, 1963)에서 말한 “이 나라는 신의 가호 밑에 이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는 영구히 지상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든가 기타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이념을 서술한 정의나 개념이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이며 규범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19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행태주의적이며 경험적인 연구 조사에 의하여 그 이론의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개념 규정이다. 경험적 개념이란 고전적 규범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 정치에 나타나는 행태적이고 제도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20세기 중엽부터 등장한 미국의 정치학자들이다. 예를 들면 슈페터(J. A. 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상호 경쟁하는 지도자들과 조직이 공공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치제도라고 보았으며, 다알(R. A. Dahl)은 그것을 “일반 시민이 정치 지도자에 대

108) M. Rejai,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New York: Atheston Press, 1967), pp. 23~47.

하여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치 체제”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립셋(S. M. Lipset)은 “통치 집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 규적이며 헌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정치 체제” 라고 보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규범적 개념은 직관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비판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현상을 관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에 나타난 행동이나 제도, 그리고 절차 등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분석 연구해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개념 정의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즉 민주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 체제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어떤 목표와 이상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와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정치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경험적 개념 정의이다. 이 개념은 실제의 정치에 있어서 가치와 사실, 이상과 현실은 엄격히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로서는 바아커(E. Barker), 린제이(A. D. Lindsay), 듀이(J. Dewey), 메이요(H. B. Mayo), 매클레이(P. Macley) 등이 있다.

린제이는 민주주의란 일반 시민이 통치의 기능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경험적 개념과 어떤 목표와 이상만을 중요시하는 규범적 개념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무조건 그것이 인민의 뜻(the will of the people), 인민의 소리(the voice of the people)라고 주장함은 단지 신화(神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린제이는 민주주의란 어디까지나 ‘토론에 의한 정치’ (government by discussion)이며, 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하는 집단의 존재와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해야 하며, 경쟁하는 집단 사이에는 상호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 것은 규범적인 측면을, 민주주의를

하나의 토의과정이라고 말한 것은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커가 민주주의를 국민의 하나의 통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본 가치를 자유라고 생각한 것은 린제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듀이는 민주주의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고 개인 각자의 목적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체 생활 자체가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간 상호간에 사랑이나 자유, 평등이 결여된 공동체(community)의 생활은 희망없는 공상적인 개념(hopeless abstractions)이라고 생각했다. 맥키버(R. M. MacIver) 역시 공동체는 인간 관계의 자연적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헌법적인 형태의 확립을 통해 그 특징이 강화되고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사르토리(Sartori)는 민주주의란 규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없는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고, 현실을 무시한 민주주의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체계(political system),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평등(equality)을 주장하고 있다. 메이요 역시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에 관심을 쏟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지도자에 의한 인민 통치의 형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민주 정치를 '토의에 의한 정치'로 보는 것이며, 여·야 당 간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합리적 토의와 설득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치 체제로 보는 것으로서 가치성과 현실성을 아울러 갖는 개념인 것이다.

넷째, 민주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개념 정의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념이 현실적 상황을 위장하는 하나의 이론 체계이며, 하나의 신조나 신화라고 보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게 되는 하나의 특정한 믿음, 정치 태도, 행동, 습성과 결부시키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로는 마르크스(K. Marx), 만하임(K. Mannheim), 라스웰(Lasswell), 매클로스키(H. McClosky), 바르부(Z. Barbu) 등이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세계관 및 신념이나, 또는 계급적·당파적·종교적·인종적인 면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밖의 선입적 편견이 수반되기 쉬운 것이다. 선입관이 들어가는 정치 현상 분석에는

사실 자체의 취사선택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유물사관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체계론자들은 정치 행동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개념 정의에도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민주주의의 개념 규정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 학자마다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특정한 국면에 초점을 맞춘 설명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념 정의들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생활 양식과 정치 형태의 통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앞에서 듀이가 한 말을 인용했지만, 민주주의란 단순한 정치 형태만은 아니며, 그것은 공동 생활의 한 양식이며, 또 서로 교섭하는 경험의 한 양식이다. 그리고 메이요가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생활의 원리와 정부 형태”¹⁰⁹⁾라고 한 말에 동의하고 싶다. 생활 방법과 행동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국민 정서 속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민주 정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작된 사상이다. 민주주의의 중요 사상인 자유와 평등도, 그리고 그 사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민주적 정치 제도나 법률, 자유주의 경제나 시장 경제 체제도 다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더욱 신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정부나 국가보다 앞서는 사상이다. 미국 버지니아의 ‘권리장전’¹¹⁰⁾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

109) H. B. Mayo,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260~263

하고 있고,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는 인민이 사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인민의 자손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란 재산을 취득·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이다. … 정부란 인민·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보호 및 안전을 위해 수립되었고 또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최대한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실정(失政)의 위협에 대한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 최선의 것이다.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그것이 이와 같은 목적에 반하거나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회의 다수인은 그 정부를 개량하고 변혁하고 또는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 라 하였고, 증산도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¹¹¹⁾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¹¹²⁾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을 위주로 하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국민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일, 즉 라스키가 말하는 「최선아 실현(最善我實現)」이 아닐 수 없다.

인간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는 첫째,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존권이라고 말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자신을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과 성취 여부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유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자유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인간은 각자의 개인을 인격적 주체로 대우하며,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이며, 인간은 유혹과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연히 일어나는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위에 인간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은 그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간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된

110) 楊茂木 역, 앞의 책, pp. 141~147

11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범: 2-20 p. 237

112) 같은 책, 교범: 2-56, p. 244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즉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운드(R. L. Pound)와 브루너(J. L. Bruner)는 민주주의를 “개성 존중, 인간의 목적성에 대한 신념, 최선이 실현을 위한 자질 능력에 대한 신념, 잠재력 내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념, 이성적이고 선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념, 진리의 상대성 우위에 대한 신념 등을 하위가치로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다.¹¹³⁾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평등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은 서로 상충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없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에 옮기며, 각자가 원하는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허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조건 또는 무제한으로 추구한다면 사회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와 약육강식의 혼란한 상태가 야기되어 평등은 있을 수 없고, 또한 평등을 절대화하여 무조건 또 무제한으로 강제한다면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을 절대적인 이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는 자유 경쟁 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적 추구에 있어서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리프만(W. Lippmann)은 “순전한 자유에는 자유가 없다(There is no freedom in more freedom)”¹¹⁴⁾ 라고 하였으며, 립슨(L. Lipson)은 “자유

113)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회로 구성된다”¹¹⁵⁾ 라고 하여 「자유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행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초적인 요구이긴 하지만,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면 인간 생활의 중심인 사회에 질서가 세워질 수 없으며, 인간 상호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각자의 최선이 실현을 통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가 인정되고 평등이 사회 각 곳에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 공동체인 사회가 정의로서 인간 관계를 이룩하고 규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좀 더 바르게 파악하려면 서구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보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3. 민주주의와 음양합덕 사상

대순 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다. 대순 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순 사상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시작과 끝이 없으며, 항구하여 막힘이 없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대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대순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음양합덕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양합덕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그 윤곽만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음양이란 글자 그대로 어두움과 밝음을 뜻하며, 『주역』 <계사전>에서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 이것을 도라 한다”(一陰一陽之謂道.)고 말한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변화가 음과 양 두

114) W. Lippmann, A Preface to morals(New York: The Macmillan Co., 1929), p. 326

115) L. Lipson, The Democratic Civi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535

개의 힘 내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위해 물러나고, 음이 절정에 이르면 양을 위해 물러난다” 는 말 속에는 대립하는 두 성질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두 성질의 밀고 당김에 의하여 모든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변동은 이 음양의 유행과 소장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모든 우주 만물은 이와 같이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움직이고 변동한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지고, 성장하고 늙고 하는 등의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두 가지 작용이 서로 교체하여 변동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변동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따른다. 여기에서 복희씨가 이런 정(正)과 반(反)의 두 작용이 원래 태극의 「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전체로 말하면 하나이고, 나누어 말하면 둘이다. 이 정과 반의 두 작용을 양의(兩儀)라고 말한다. 양의의 정과 반은 본질적으로는 태극의 「一」이다. 그리고 양의에서 생긴 것이 「사상(四象)」이다. 사상의 의미는 음양의 두 작용과 그것이 서로 교류하여 사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복희는 사상에다 획을 하나 더 첨가하여 여덟 개의 부호를 만들었다. 이것을 「8괘」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곽자(東郭子)가 장자에게 「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동곽자가 장자에게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없는 곳이 없다. 동곽자가 또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지적할 수 없겠습니까? 장자는 이에 대해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있지. 어찌 그런 곳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들풀 같은 데 있지. 어찌 더욱 그런 데 있습니까? 벽돌 속에 있지. 어찌 자꾸만 더욱 심해지는지요?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똥오줌에 있지. 동곽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¹¹⁶⁾

116) 『莊子』 <知北遊篇>, “東郭子問於莊子曰, 所謂道, 惡乎在? 莊子曰, 無所不在. 東郭子曰, 期而後可. 莊子曰, 在螻蟻. 曰, 何其下邪? 曰, 在稊稗. 曰, 何其愈下邪? 曰, 在瓦礫. 曰, 何其愈甚邪? 曰, 在屎溺. 東郭子不應”

위 인용문에서 장자와 동곽자 사이에 오간 대화가 진담을 말하고 있는지,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언제나 따라 다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 유행(流行)하는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고 하여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¹¹⁷⁾ 인간은 도가 낳은 만물 중의 하나이며,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에 대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¹¹⁸⁾ 맹자는, “도는 하나일 뿐이다.”¹¹⁹⁾ 노자는, “성인은 하나의 도만을 굳게 지켜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¹²⁰⁾ 장자는, “서로 해괴망측하게 상대되어 있으나 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로 통한다”¹²¹⁾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도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종합 분석해 본다.¹²²⁾ 「도」란 첫째, 우주 만물을 통괄하는 것이 전체로서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일은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가 없음을 의미한다. 「주역」은 「一」이라는 부호로서 표시하는데 그것을 「태극」이라 이름한다. 「태극」은 생성 변화의 근본이고, 「도」는 생성 변화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 두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는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계사전>에, “천하의 움직임은 일 「一」에서 근거한다”(天下之動貞夫一者也)고 하였다. 여기서의 「일」도 태극의 「일」과 「도」를 함께 의미한다. 또 「일음일양지위도」에서의 도는 바로 태극을 의미한다.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에서 「일음일양」은 원래가 태극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체의 입장에서 각각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다. 우주내의 모든 사물들은 전체로서의 「일」에서 나왔지만 어떠한 하나의 사물일지라도 그 자체(自性)로서 말하면 모두가 하나이며, 모자람이 없는 원만함을 의미한

117) <계사전>,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118) 『論語』 <里仁篇>, “吾道一以貫之”

119) 『孟子』 <滕文公 上>, “夫道, 一而已矣”

120) 『老子』 제22장, “聖人抱一爲天下式”

121) 『莊子』 <제물론>, “恢掩樛怪, 道通爲一”

122) 高懷民 著, 鄭炳碩 譯, 앞의 책, pp. 41~42

다. 예를 들면 큰 태산과 가장 작은 터럭, 가장 오래 산 팽조(彭祖)와 가장 짧게 산 상자(殤子), 엄청나게 큰 곤이라는 물고기와 붕새, 아주 작은 매미와 비둘기¹²³⁾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하나하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송대의 유가들이 ‘일물일태극(一物一太極)’ 과 ‘인심(人心)이 하나의 소우주이다’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도」는 전체와 개별체를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다. 노자는 “하늘은 일자를 얻어서 맑고, 땅은 일자를 얻어서 편안하고, 신은 일자를 얻어서 신령하고, 계곡은 일자를 얻어서 채우고, 만물은 일자를 얻어서 생성하고, 군주는 일자를 얻어서 천하가 바르게 된다”¹²⁴⁾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도」는 항상 「일」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음 「일음일양지위도」라는 말의 뜻을 여기에 종합 분석해 본다.¹²⁵⁾ 첫째, 도의 유행은 「원도(圓道)」라는 것이다. 천체의 질서와 인사, 물의 상태 등을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원만한 도는 유전하는 운동이다. <태괘(泰卦)>의 구삼 효사에서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없다.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无平不陂, 无往不復)라든가, <계사전>에서 “두루두루 여섯 곳(상하사방 혹은 여섯 효)의 빈 곳에 모두 유행한다”(周流六虛)라고 하였다. 「도」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체적인 보편적 흐름의 운동으로, 인간의 눈을 통하여 보면 자연은 진퇴도 있고, 가고 돌아옴(往反)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뜻은 여기에서 성립된다 하겠다.

둘째, 「도」는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도」는 「一」로서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양의 성질은 시작하는 움직임이며, 음의 성질은 이어받아 계승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 두 음과 양이 교감하고 합덕함으로써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발전하는, 모든 변화가 전개되는 것이다.

123) 『莊子』의 <逍遙遊>와 <齊物論> 참조

124) 『老子』 제39장,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125) 같은 책, 46~48

다시 말하면 음양합덕은 모두 양 속의 음과 음 속의 양의 결합이지만, 건곤의 합덕은 순음(純陰)과 순양(純陽)의 합덕, 즉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정음(正陰)과 정양(正陽)의 합덕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순 사상에서는 음양의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을 신이라 하였다. 이러한 합덕에 의해서 강유(剛柔)가 생기며, 천지의 일을 몸으로 구현하고, 이로써 신명의 일에 통한다는 것이다(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여기에서 신명의 덕이란 귀신의 힘을 말하고 또 이 힘과 소통한다고 함은 곧 덕성의 신명을 뜻한다. 강은 양이고, 유는 음이다. 양은 동(動)이고 음은 정(靜)이다. 동이 극에 달하면 정이 되고, 정이 극에 달하면 동이 된다. 동 가운데 정이 있고, 정 가운데 동이 있기 때문이다. 강중(剛中)에 유(柔)가 있고 유중(柔中)에 강(剛)이 있다. 강이 극에 달하면 유가 되고 유가 극에 달하면 강이 된다. 예를 들면 인간에 있어서 남성은 양이고, 여성은 음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활동을 크게 하면 양이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음이 된다. 자연에 있어서 하늘을 양이라 하고, 땅을 음이라 한다. 같은 하늘이라도 맑으면 양이고 흐리면 음이다. 음양은 무한한 변화를 창출한다. 그러기에 음과 양은 대립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음양합덕 사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첫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사상이다. <계사전>에서 음양합덕은 「순음 순양(純陰純陽)」의 합덕을, <대순 사상>에서 음양합덕은 「정음 정양(正陰正陽)」의 합덕을 말한다. 이는 각 개체의 존엄성의 인정을 말하고 있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각각의 특이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양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양은 음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음양의 감응과 교감이라야 진정한 「합덕」이 되는 것이다. 그건 모든 우주 만물이 대개 피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각자 자신의 내면적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더욱 존엄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바로 이 자아 관념, 즉 천부의 인권으로 보고 있는 자연법 사상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내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개체의 존재에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둘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사상이다. 음양합덕 사상에서 음과 양의 교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만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운동을 한다. 일반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스스로 하고 이런 분석 위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행동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권리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행동에 옮기며, 각자가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 자유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도 인간이 자유를 가진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순환의 원리」도 바로 「자유 사상」을 말한다. “천하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따라서 항구(恒久)하여 막히지 않는다. 항구하다는 것은 일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하면 항구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변역(變易)함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길이다” (주역·程傳)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만물에는 박진(剝盡)하는 이치가 없으며 궁진(窮盡)하면 다시 회복된다. 천지와 자연은 부단히 변화하며, 그 변화는 ‘종칙유시(終則有始)’나 ‘박복지리(剝復之理)’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천지가 서로 감응하는 가운데 만물이 변화하고 생성하려면 인간이 먼저 해원하여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다음에는 북은 하늘과 땅이 해원함으로써 선천의 부자유한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음양합덕을 통한 자유로운 순환 과정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대순 사상에서는 말한다. 이것이 곧 ‘순음 순양’ ‘정음 정양’의 합덕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셋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 사상이다. 음양합덕은 순음 순양과 정음 정양이 덕으로 합해짐을 말한다. 앞에서 이미 음양의 교감은 일 대 일의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만남을 가져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우주 만물은 정상적으로 생성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념이 평등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이란 신분, 재산, 종족, 성별, 노유(老幼) 등에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역』 <겸·상>(謙·象)에서 “사물의 균형 상태를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푼다”(稱物平施), <무망·상>(无妄·象)에서 “때에 따라 만물을 무성케 하고 생육케 한다”(茂對時 育萬物)라든가, 『대순 사상』에서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¹²⁶⁾든가,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¹²⁷⁾든가,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¹²⁸⁾ 라고 한 말들은 명실상부한 인간의 평등은 물론 우주 만물의 평등 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넷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 사상이다. 자유와 평등 사상에 생동감 넘치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사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윤희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 정의’ 사상이다. 사회가 아무리 자유롭고 평등이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정의로서 모든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회를 가리켜 민주 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주역』 <단사>에서는 “그 만물이 모이는 것을 보아 천지 만물의 실정을

12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9, p. 222

127) 같은 책, 교법: 1-10, p. 222

128) 같은 책, 교법: 1-68, p. 233

알 수 있으며, 순종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모인다” 고 하였다. <취괘>에서는 “위정자는 천하의 인심을 모아야 하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묘(廟)를 세우고 크고 많은 희생의 제물로써 효향(孝享)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萃亨王假有廟 利見大人 亨利貞 萃天下之心者 无如孝享 王者萃天下之道 至於有廟則其極也.)라고 말하며, <정전(程傳)>에서는 “흔히 사람이 모이면 혼란이 생기고, 재물이 집중되면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나며, 일이 모이면 문란해진다. 위정자가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도(正道)로써 인심에 호소해야 한다” (人聚則亂 物聚則爭 事聚則紊 非大人治之則萃所以致爭亂也)라고 말하며, 또 <취(萃)> 집주(集註)에서 진제 서씨(進齊徐氏)는 “천지 만물은 비록 높고 낮음이 다를지라도 감(感)하면 그 정(情)이 통함을 알 수 있고, 항(恒)하면 그 정이 오래 감을 알 수 있으며, 모이면 그 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이는 곳이 아니면 그 정이 하나임을 알 수가 없다” (天地萬物 高下散殊 感則見其情之通 恒則見其情之久 萃則見其情之同 不于其萃而觀之 情之一者 不可得而見矣)라고 말하고 있다. 또 대순 사상의 『음양경』에는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땅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아래에 펼침이 없고, 땅은 천공(天功)이 없으면 그 위에 이름이 없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萬象)이 갖추어진다” 라고 하였다.

위 인용문들은 모두 우주 만물은 각각의 방향, 성향, 원근, 친소, 귀천 등을 갖고 있어 서로 같지 않으나 “음은 음을 양은 양을” 좇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정도(正道), 즉 정의로서 규율되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늘은 높고 낮으며, 남자와 여자의 바탕이 서로 다르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만 가지로 서로 다르지만, 양의 기운이 내려가고 음의 기운이 올라가는 이치에 따른 상합(相合)에 의해 화육함은 같으며, 남녀가 서로를 구하는 뜻도 통하고, 만물이 모두 음양의 기를 받은 점에서 서로 다를 바 없는 까닭에 만물의 형상은 다르나 이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하늘의 도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교감을 통한 합덕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천지가

화합하게 되고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하게 되어 정의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만물이 제대로 된 형상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건과 곤, 음과 양이 각자 바른 덕을 지녀야 하고, 양이 음을 받들고 음이 양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다섯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사상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서 사회화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까지나 사회 안에서만 혹은 사회와 더불어서만 생각할 수 있으며, 인간성도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과 상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개인은 사회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음양 사상으로 따져 보면 개인을 음, 사회를 양이라 한다. 그래서 주자는 “우주는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기 태극을 갖고 있다”(萬有一太極 萬有各有太極)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는 그 성격상 어느 쪽을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하나는 개인이 으뜸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살았으며 이성과 자연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정치적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것은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의 보호와 생존을 위해서 협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음 따로 양 따로와 같이 일련의 무리나 집단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만약 음이 양을 무시하거나 양이 음을 무시하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전체를, 전체가 개인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서로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 서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음과 양의 관계처럼 따로 따로 분리해서도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거나,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인은(網緝)이 되지 않으면, 만물은 불흥(不興)·불통(不通)·불녕(不寧)의 상태가 되

고 만다. 그러나 <단사>(象辭)에서는 “천지가 어긋나지만 그 일은 같으며, 남녀가 어긋나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통하며, 만물이 어긋나지만 그 일은 비슷하다”(天地睽而其事同也 男女睽而其志通也 萬物睽而其事類也), <해괘(解卦)>에는 뇌우(雷雨)가 일어남에 따라 “온갖 과실과 초목이 모두 썩어 썩는다”(百果草木皆甲坼), “초목이 무성하다”(草木蕃)고 하였다.

이는 이질적인 존재의 갈등 속에도 자체 내에 조절 작용이 있어 궁극적으로 타협과 화해를 이루어 만물을 화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두 성질, 즉 음양이 그 덕을 합하니 강유가 생기고(陰陽合德而剛柔有體-「주역」 <계사전> 하, 6장), 강유의 밀고 당김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하고,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음과 양의 합덕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개체와 전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민주적 개인과 민주적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그래서 “개(個)와 전(全)의 변증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여섯째,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환(循環)」 사상과 서로 통한다.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며, 대순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바로 순환 사상이다. 이것은 음양합덕 사상이며, 천지인의 인격적 합일 사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 지인합일(地人合一), 인인합일(人人合一)이 되는,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풍성한 성격으로 착하고 자애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후천 개혁 사상이 된다.

순환 사상은 『대순 전경』 <고견원려왈지>에서 “지혜란 천지와 같으니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 연월일시와 분(分)과 각(刻)이 돌아가는 것은 이 모두 원형이정한 천지의 길이다”(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라고 하고, <음양경>에서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神人)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순자(荀子)』 <예론(禮論)>에는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음과 양이 만나 변화가 일어난다”(天地合而

萬物生 陰陽接而變化起), <계사전>에 “천지의 큰 덕은 만물로 하여금 부단히 낳아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天地之大德曰生) 라고 말하였다.

천지의 도는 일음일양으로 유행한다. 천지는 일체 만물을 낳로 새롭게 창화하고 창달한다. 변역(變易)이 단순히 사물의 변역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덕(盛德), 대업(大業), 인(仁) 등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부단한 창달, 창화이다. 천일(天一)·지일(地一)·인일(人一)의 일(一)은 천계·지계·인계의 삼계 일체를 의미하며, 또 과거·현재·미래를 의미한다. 우주의 시공을 크게 보면, 천계·지계·인계도 하나의 공간이며, 과거·현재·미래도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우주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 과정에서 음양합덕 사상은 시공을 초월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무선무후 무두무미(無先無後 無頭無尾)를 뜻하는 하나의 일원사상(一圓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경』에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과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및 “만왕만래(萬往萬來)”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은 시작없는 하나로부터 비롯되며, 하나의 끝마침은 끝마침이 없는 하나이며, 세상만사가 가고 온다는 것이다. 즉 세상 만사가 일개 사물의 형태로 보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사물의 근본을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가고 오며 돌고 돈다는 의미이다. 『노자』 25장에 “고요하고 고요하다. 홀로 서되 바뀌지 않고, 두루 행하여도 위태롭지 않다.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자를 지어 도(道)라 한다”, 『장자』 <제물론>편에 “시초가 있다 하자. 그러면 그 이전 아직 시초가 없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시초가 없는 때조차 없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천지를 시간적으로는 무시무종하고, 공간적으로는 무궁무진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이다.

대순 사상은 또 『고견원려왈지』에서 “연월일시와 분(分)과 각(刻)이 돌아가는 것은 이 모두 원형이정(元亨利貞)한 천지의 길이다”(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천지의 운행 법칙을 말하며, 여기서 원(元)은 만물의 시초를 말하고, 형(亨)은 만물의 성장을 말하고, 이(理)는 만물의 완수를 말하고, 정(貞)은 만물의 완성을 말한다. 주희도

대순 사상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즉 주희는 말하기를, “원(元)은 만물의 태어남이요, 형(亨)은 만물의 창무함이요, 이(理)는 열매가 익어감이요, 정(貞)은 그 열매가 이루어짐이다. 열매가 다 익으면 그 뿌리와 꼭지가 떨어지는데 이를 다시 땅에 심어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이정 사이에 생기가 유행하여 처음부터 간단함이 없으니 이것이 원이 나머 지 덕을 포함하여 통천하는 까닭이 된다”¹²⁹⁾ 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원형이정은 그대로 사계절에 해당된다. 자연계에서의 가장 뚜렷한 변화인 사계절의 운행이 천지의 운행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오는 것이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원시반본이란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짐을 의미한다. 대순 사상의 도는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이며, 천지일월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운동을 스스로 무한히 반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은 선천의 분열 과정을 종결짓고, 후천의 낙원세계, 즉 자연세계와 인간이 상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완성시키는 통일의 길을 말한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변화 생성하게 함은 천과 지의 기운의 상호 조화와 합덕에 의한 교감에 의해 가능하다. 합덕 교감에 의한 소통이 이루어짐은 좋은 낙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만약 교감은 하되 덕으로 합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질곡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또 대순 사상은 『음양경』에서도, “...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神人)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해야 만상(萬象)이 갖추어진다. ...” (…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天地和而萬物暢天地安而萬象具. ...)라고 하였다. 이 인용문은 합덕 교감에는 음과 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일체의 생성이 대립자들의 만남에서 비롯됨을 말한다. 「계사전」에서도 “강과 유가 서로 밀어대니 변화가 생긴다”, “굴신(屈伸)이 서로 감응하니 이로움이 생긴다”, “애오(愛惡)가 서로 공격

129) 乾象 本義.

하니 길함과 흥함이 생긴다”, “참과 거짓의 만남에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생긴다” 등은 모두 대립자 상호간의 만남, 합덕 교감에 의하여 새로운 요인이 생김을 말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대순 사상이나 주역 사상을 막론하고 건과 곤의 사이가 태극이며, 음이 쌓여 있는 그 아래에서 하나의 양이 다시 생긴 것은 바로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원시반본에서처럼 거의 멸식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대순 사상은 『고견원려왈지』에서, “그것을 알게 됨에 따라 유익함이 무궁하여 자연심(自然心)이 절로 열린다”(因其己之知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연의 마음은 멸절이 없는 끊임없는 생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또 생명 창달, 생명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대순 사상에서 양은 사람이며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양을 사람 대신에 군자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대순 사상은 생명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대순의 순환 사상이고, 윤회 사상이고, 만민일체 사상이고, 인류 구원 사상이고, 민주주의 사상의 요체가 된다 하겠다.

4. 세계 평화 원동력으로서의 음양합덕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존 듀이(John Dewey)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 형태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공동생활의 하나의 양식이며, 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태도이다” 라고 하여 생활 양식으로서의 목적과 내용으로 보았고, 어네스트 바아커(Ernest Barker)는 “인간 정신의 활동적 원리이며, 자유로운 정신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원리이다” 라고 하여 행동단위로서의 인간 존중의 정신 원리로 보았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말의 해석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정치 형태와 정책 내용이 다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가 명실상부

하게 실현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이 이미 오래 전에 표방한 홍익인간의 이념이 현대에 이르러 그대로 구현된 것이 민주주의라 한 정치 형태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에 초래된 민주주의의 혼돈 과정을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전통 사상과 경전들, 그리고 대순 진리의 음양합덕 사상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도 하나의 시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순 진리의 음양합덕 사상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원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정치를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간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는 첫째,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존권이라고 말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자신을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과 성취 여부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유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자유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인간은 각자의 개인을 인격적 주체로 대우하며,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이며, 인간은 유혹과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의연히 일어나는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위에 인간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은 그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간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즉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있는 생활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숱한 역사적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17·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민주주의 이념은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의 형태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자연법 사상은 합리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국가 성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주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법 사상은 인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시켰으며, 사회 질서도 올바른 이성이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과 조화되어야 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켈젠과 같은 학자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규범과 같이 인공적인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신이나 자연이나 이성에서 유래하는 선(善), 정당(正當), 정의(正義)로써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자연적 질서에서 구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은 ① 자연법은 이원적(二元的) 견해, 즉 자연법과 실정법을 가지고 있으며, ② 자연법은 현세적이며, ③ 자연법은 개인주의적이라는 사상을 낳았으며, 근대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봉건 귀족과 절대 군주, 그리고 시민 계급 사이의 세력 다툼에 있어 사상적 무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시민사회가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이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자연 권리와 결부되어 천부(天賦),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로 정착되었으며, 어떠한 정부 형태도 인간의 천부적이며 불가양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침해하는 정부 형태가 있다면 인민에 의해 변경, 폐지된다는 견해를 낳았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우주의 법칙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천 세계의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고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 「대순 사상」과 함께 사회계약 이론과 결부되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또다른 한 학설인 사회계약설은 단순히 군주로 하여금 선정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사회 및 국가간의 관계 규명을 전제로 하는 시민정부적 이론이었으며, 그것이 절대 군주정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나타난 사

상이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 시대에 따라 알맞게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권력, 즉 입법부는 원천적으로 성립된 계약의 성격에 의해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하였다. 로크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계약론은 ① 개인주의(자유주의), ② 국민주권주의(저항권), ③ 대의정치 및 다수결 원리, ④ 권력분립의 원리 등으로 집약되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그 설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이론적 개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며, 어떤 특수적 상황이나 조건하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적 개념이란 순전히 사변(思辨)의 작용으로서 추상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진 개념이란 뜻이며, 보편적 개념이란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의 개별적이며 특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무릇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성품과 추구하는 생활에 타당성을 갖게 하는 원리를 뜻한다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념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자유, 평등, 박애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민주주의 정신의 지표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격 존중의 정신 원리를 제도화시켰다.

그 후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논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능력간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은 누구나 풍요의 세계와 그것의 직접적인 실현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남과 같이 동등하게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파생된 이익도 동등하게 공유하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평등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존

하는 그 나라의 제도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 반응은 느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적 또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주의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지난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즉 그 동안의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어 분화와 전문화의 폭을 넓혔으며, 국민 개개인들의 정치 참여 의식도 증대시켰다. 결국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의 관계가 점차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첫째,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경제 구조가 분배 문제 해결에 좀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회 계층상의 차별이 심하고, 국민 대중의 생활 수준이 일정한 인간적인 복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민 소득의 분배 역시 공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대중은 언제나 국가 체제와의 동일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적 일체감은 좀처럼 생겨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곤과 만성화된 대량 실업은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협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장기간의 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불행하게도 경제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겠다. 경제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 및 금융 규제를 「혁파(革罷)」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악의 금융개입」으로 기업들만 도산시켜 국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과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통치 방식과 사회적 통제 방법, 그리고 경제 성장의 방향, 즉 금융실명제를 비롯 모든 경제 규제를 풀고 재조정하여야 되겠다. 실업을 방지하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을 유지하는 정책을 과감히 실시해야 되겠다. 교육제

도를 현대화하고, 지역 사회와 결정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책임있는 정보제도를 확립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관료제도를 시민에게 돌려 주고, 사기업의 관료제를 소비자에게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제논리」에 맞춰 풀어가야지 「정치논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안정, 안보 등을 추구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정의와 평등함을 근본 목표로 삼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 자유 민주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 건물 위에는 아직도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 라는 말이 새겨져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및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도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민주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도 민주주의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 대순 사상의 음양합덕 사상에 의한 후천 선경의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를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총체적 위기는 자연 해소될 것이며,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도 자동적으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라면 이 국가 이 민족의 한결같은 영원인 남북통일도 오히려 앞당기게 될 것이다.

대순 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순 사상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대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대순 사상이 바로 음양합덕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양합덕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음양합덕 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 사상이다. 음양합덕은 순음 순양과 정음 정양이 덕으로 합해짐을 말한다. 앞에서 이미 음양의 교감은 일 대 일의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만남을 가져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우주 만물은 정상적으로 생성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천지의 도는 일음일양으로 유행한다. 천지는 일체 만물을 날로 새롭게 창조하고 창달한다. 변역(變易)이 단순히 사물의 변역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덕(盛德), 대업(大業), 인(仁) 등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무단한 창달, 창화이다. 천일(天一)·지일(地一)·인일(人一)의 일(一)은 천계·지계·인계의 삼계 일체를 의미하며, 또 과거·현재·미래를 의미한다. 우주의 시공을 크게 보면, 천계·지계·인계도 하나의 공간이며, 과거·현재·미래도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우주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 과정에서 음양합덕 사상은 시공을 초월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무선무후 무두무미(無先無後 無頭無尾)를 뜻하는 하나의 일원사상(一圓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의 두 작용은 태극의 분화이고, 그 둘은 가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다시 간다. 비록 나누어지지만 합하고, 합하여 있지만 나누어지는 것으로 방행불류(芳行不流)하여 조화가 있고 규율이 있게 된다. 음양의 두 작용은 모두 「균형」을 갖기 위해 유행한다.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불균형이나 불공정도 균형, 즉 유행을 추진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화롭게 조정된다.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은 모두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대립과 통일은 원래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맹자는 말하였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육의 뼈를 피로케 하고, 살을 여위게 하고, 몸뚱이를 지치게 하여 행하려는 것을 멋대로 어지럽게 만들고 잘 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그의 심지를 격동케 하고 성정을 굳게 지켜 결핍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은 불균형의 도로서 바로 인간을 「불균형」 속으로 밀어 넣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균형」을 찾으려는 천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균형을 찾으려면 덕성과 지혜, 높은 도술과 재주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천지 만물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항구하여 막히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음양합덕 사상의 조화가 있다.

미래의 한국 사회와 세계의 인류를 위한 「선경 사회」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음양합덕」 사상으로 잘 조화된 시대가 돼야 하겠다. 정치만이 아니다. 경제도, 경영도, 법률도, 문화도, 언론도, 교육도, 가정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인류가 갈구하는 구원과 평화도 음양합덕 사상으로 재무장하여
 틀을 재구성하여야 되겠다. 즉 「합덕」과 「조화」가 넘쳐 인간 삶의 질이
 충만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음양합덕 사상은 한국 민족
 의 고유한 인간 구원 사상이며,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임을 살펴 보
 았다. 세계 평화의 원동력으로서 음양합덕의 사상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
 해 본다.

V. 결론

- 한국의 음양합덕 민주정치의 실현

민주주의는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찬양되고 추종되는 보편적 이상이 되었
 다. 심지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집단까지도 자기
 들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자처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각고 끝에 마련한 생활 양식이
 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
 든 사람의 정신이며 태도라 하겠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작된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음양합덕 사상이다. 밀은 그의 저서 ‘자유
 론’에서, “전체주의는 국가가 개인과 시민 사회를 통제한다. 그리고 국가는
 미리 정해진 가치의 기준에 의하여 모든 사회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는 순
 응과 복종을 강요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과 사회 제도와
 구별한다. 개인의 자발성과 독창성, 그리고 실행과 진리에 대한 탐구는 개인
 과 그들 사회 제도의 범주 내에 있게 된다. 국가의 역할은 다만 개인의 보
 호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
 다” 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 권력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개인
 자유의 쇠퇴를 의미하며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 주로 엘리트스트(elitist)론적 사회학자들인 파레토(Vilfredo Pareto), 모스카(Gaetano Mosca), 그리고 미첼스(Robert Michels)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허울좋은 가면 뒤에는 언제나 과두정치가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이들이 자리를 바꾸는 일은 있지만 늘 이들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른바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허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힘이 불평등한 상황에서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힘을 평등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어느 조직에서나 지도자와 추종자가 있으며, 추종자는 지도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과두정치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평등과 계급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는 어떠한 이론적 기초와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가?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개인주의이다. 민주주의 과정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개인에서 끝이 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개인의 완성에 있으며, 민주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자기 발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인간은 천부적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 이 경우 자유란 속박과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Hobbes), 합리적이란 이해 타산 능력, 곧 재산 능력을 의미하며(Hobbes, Locke, Mill), 도덕적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의미이다(Locke).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 자질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등이란 인간의 능력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다같이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평등은 동일함의 평등이라기보다는 다양함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사상으로 등장한다. 민주 사회는 원래 대립과 합의가 균형을 취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공통의 합의, 효과적인 권력의 발전, 합법적인 권위의 확립, 재화와 용역의 분배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민주적 행위는 여러 가치와 자원을 둘러싼 대립과 합의 또는 분열과 응집이 있으되 그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 사회에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원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사회에는 이익집단, 통신매체, 정당, 그리고 기타의 자발적인 협회 등이 있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대하여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집단은 정부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된다. 정부와 비정부 조직간에는 권력의 독점이나 임의성이 제한되어 권력이 분립된 상태에서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이 전개된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는 이러한 투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의 길을 찾는다. 정당도 사회 단체도 일반 시민들도 정치 권력에 참여하고, 정부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력을 갖는다. 민주 사회는 정부와 시민이 다같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정치 권력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만약 정부나 어떤 특정 집단이 시민이나 어느 집단으로 하여금 참여를 중지시키거나 강제로 참여를 못하게 하면 그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 권위는 당연히 법의 지배로부터 나온다. 법의 지배란 행정, 사법, 입법부 모두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법률에 복종해야 함은 물론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지도자나 정책,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도 선택할 권리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상은 바로 대순 사상의 천지인 합일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그 동안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올바르게 펴지 못한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낳았다. 앞 장의 「대순 사상에 나타난 음양합덕」에

서 이미 살펴 보았지만, 인간 만사의 모든 변화는 대립되는 두 성질, 즉 음과 양의 밀고 당김에 의하여 발생한다. 음양은 서로 유전한다. 양은 변하여 음이 되고, 음은 변하여 양이 된다. 강유가 서로 밀고 당김에 의하여 변화가 생긴다. 음과 양은 성질은 다르지만 서로 감응한다.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림, 이를 일러 변화라 한다.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대립과 통일은 원래 분리할 수 없다. 그 둘은 도가 하나이면서도 다(多)인 본래 모습의 표현이다. 음양의 두 작용은 태극의 분화이고, 그 둘은 가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간다. 비록 나누어지지만 합하고, 합하여 있지만 나누어지는 것으로 방행불류(芳行不流)하여 조화가 있고 규율이 있게 된다. 음양의 두 작용은 모두 「균형」을 갖기 위해 유행한다.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불균형이나 불공정도 균형, 즉 유행을 추진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화롭게 조정된다.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은 모두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음양합덕에 의해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이론은 현대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주 만물의 무수한 현상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뉴턴의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케플러의 ‘천체운동의 법칙’ 등),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먼 미래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 즉 「카오스」 이론¹³⁰⁾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카오스는 분명 현실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맹자도 말하였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통스

130) “북경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를 파닥거리 일으키는 미세한 바람이 수개월 후 미국 대륙을 휩쓰는 허리케인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나비 효과> 이론이라고도 한다. 과거 뉴턴이나 케플러가 발견한 우주 및 천체 운동의 법칙은 “모든 자연 현상은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질서 정연한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법칙을 나타내는 방정식과 초기값을 알면 모든 현상의 과거의 상태는 물론 영원한 미래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오스란 어떤 계(系)가 확고한 규칙(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서 먼 미래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란 것이다. 合原一幸 저, 과학세대 옮김, 앞의 책 참조

럽게 하고, 근육의 뼈를 피로케 하고, 살을 여위게 하고, 몸뚱이를 지치게 하여 행하려는 것을 멋대로 어지럽게 만들고 잘 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그의 심지를 격동케 하고 성정을 굳게 지켜 결핍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¹³¹⁾ 여기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은 불균형의 도로서 바로 인간을 「불균형」 속으로 밀어 넣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균형」을 찾으려는 천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균형을 찾으려면 덕성과 지혜, 높은 도술과 재주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천지 만물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항구하여 막히지 않는다. 항구하다는 것은 일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변역함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균형된 생활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된 생활을 이상으로 하여 언제나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런 분투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타협의 원칙」도 그렇다. 해와 달,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합덕함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생겨나 「불균형」이 「균형」으로 유지 발전되듯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한 합덕으로 투쟁과 갈등을 「타협」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타협의 원칙」은 다수가 소수의 의사에 대해 양보하는 정신이며, 동시에 소수에게도 보다 더 많은 양보를 구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토론과정에서 서로 부여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다수와 소수가 조화로운 합덕을 하게 되고, 질적으로 새로운 의사를 창조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합덕에 의한 타협이 없다면 다수결이란 단순한 형식적 행위 또는 일방적인 의사 표현으로 되어 이른바 다수자의 횡포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타협의 원칙이 성립되지 못하면 토론에 의한 정치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 예가 바로 문민정부하에서 신한국당 의원들만의 단독 국회를 통해 전격 치러진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국민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131) 『맹자』 <告子 下>,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일방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로 국민경제가 총파탄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또다시 단행된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허탈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격화된 갈등과 분열은 한국의 민주 정치를 총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정치 지도자들이 음양합덕에 의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민주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다 하겠다.

이제 한국 정치의 「혼돈」을 「조화」로 바꿔야겠다. 미래의 한국 사회와 세계의 인류를 위한 「선경 사회」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음양합덕」 사상으로 잘 조화된 시대가 돼야 하겠다. 정치만이 아니다. 경제도, 경영도, 법률도, 문화도, 언론도, 교육도, 가정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인류가 갈구하는 구원과 평화도 음양합덕 사상으로 재무장하여 틀을 재구성하여야 되겠다. 즉 「합덕」과 「조화」가 넘쳐 인간 삶의 질이 증만된 민주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사회에는 인간 상호간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겸손할줄 알고 양보할줄 알고 용서할줄 아는 「정음 정양」을 갖춘 「천지인 합일」(天地人 合一) 사상을 서로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행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자발적이고 독창적인 음양합덕 사상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 국가 민족 사회의 번영은 물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고, 세계 인류를 위한 공동의 명제인 민주주의 체제도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순 사상 중 음양합덕과 민주주의 사상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음양합덕 사상은 한국 민족의 고유한 인간 구원 사상이며, 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임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대순 사상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민주주의가 본래의 사상대로 인류의 보편적 사상으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초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천민 자본주의, 인간의 이기심 극복 실패 등으로 혼란을 자초했다. 이로 인해 서구 문명의 종말을 논하는 이도 있을 정도이다. 실패한 정치적 민주주

의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 음양합덕은 후천개벽의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저 서

가. 한 국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高東永 옮김, 桓檀古記(서울: 한뿌리, 1996)

고순복, 오천년 빛보라(서울: 거목, 1995)

高懷民 著: 崇實大哲學研究室譯, 中國古代易學史(서울: 송실대출판부, 1994)

高懷民 著: 鄭炳碩 譯, 周易哲學의 理解(서울: 문예출판사, 1996)

高懷民, 先秦易學史

곽신환, 주역의 이해(서울: 서광사, 1990)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개인과 국가(2)(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韓國國民倫理學會 編, 國民倫理(서울: 형설출판사, 1988)

金桂鴻, 天符經과 宇宙變化(서울: 천부사, 1993)

金碩鎭 譯解, 周易傳義大全(서울: 대유학당, 1996)

김유남, 두 개의 한국과 주변국들(서울: 훈민정음, 1996)

金時俊 譯解, 大學·中庸(서울: 혜원출판사, 1996)

金鎔貞 譯/Jeremy Rifkin, 엔트로피(서울: 안산미디어, 1995)

金殷洙 譯註, 桓檀古記(서울: 가나출판사, 1985)

金殷洙 譯(桂延壽 編), 檀君古記(서울: 가나출판사, 1985)

김태균, 현대사회와 한국정신(서울: 백산출판사, 1992)

金泰吉·尹明老·崔明官 譯, 서양철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96)

김한권, 한민족의 정신문화(서울: 미래문화사, 1989)

김형철 역/J. S. Mill, 자유론(서울: 서광사, 1992)

金洪喆·金相日·趙典胤, 韓國宗教思想史(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金眞赫, 단군성조의 사상과 그의 人間學(서울: 인간사랑, 1991)

- 吉昇欽 의, 韓國現代政治論(서울: 법문사, 1995)
- 盧吉明, 韓國新生宗教의 形成過程 研究(서울: 서강대사회문제연구소, 1976)
- 勞思光 著: 鄭仁在 譯, 中國哲學史(서울: 탐구당, 1995)
- 盧台俊 譯解, 周易(서울: 한국교육출판사, 1986)
-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서울: 한울, 1996)
- 戴君仁, 談易
- 藤堂明保, 漢字의 思想
- 문일석, 남을 잘되게 하라(서울: 태일출판사, 1997)
- 박광순 옮김/Herodotos, 헤로도토스 歷史(서울: 범우사, 1996)
- 朴一峰 譯著, 莊子(서울: 육문사, 1990)
- 朴智東 역/Alexis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서울: 서광사, 1992)
- 박충석 · 진덕규 묶음, 민주주의를 위한 변명(서울: 삼영사, 1983)
- 白京男, 民主主義論(서울: 법지사, 1987)
-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서울: 인간연합, 1983)
- 徐敬德, 花潭集
-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서울: 교문사, 1995)
- 양무목 역/Carl L. Becker, 현대민주주의(서울: 거목, 1987)
- 양무목, 韓國政黨政治論(서울: 법문사, 1983)
- 楊榮國, 中國古代思想史
- 양재혁 · 최윤수 · 조현숙 편저, 중국철학강의(서울: 돌베개, 1990)
- 劉元東 · 韓庸熙 · 吳壽賢 · 趙恒來, 韓國現代社會와 思想的 諸問題
(서울: 정음문화사, 1989)
- 李家源 監修, 書經(서울: 한국교육출판사, 1986)
- 이규성 편,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李克燦 編, 民主主義(서울: 종로서적, 1987)
- 이극찬 역/Bertrand Russell, 權力論(서울: 법문사, 1982)
- 李東熙 역/William Ebenstein & Edwin Fogelman, 現代政治理念(Today's
Isms) (서울: 법문사, 1986)
- 李民樹 譯解, 禮記(서울: 해원출판사, 1996)

- 이민재 옮김/C. R. Darwin, 종의 기원(서울: 을유문화사, 1995)
- 李相斗譯/C.B.Macpherson,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서울:범우사,1992)
- 李成珪 編譯(司馬遷撰), 史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李成珪 譯/H. G. Creel, 孔子: 인간과 신화(서울: 지식산업사, 1996)
- 李鍾恒, 政治學概論(서울: 진명문화사, 1979)
- 李眞進 풀이, 天符經(서울: 치국평천지사, 1996)
- 이희재 옮김/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서울: 김영사, 1997)
- 林泳暢·裴容德, 甌山神學概論(上)(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2)
- 張秉吉, 대순종교사상(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 張秉吉 編述, 天地公事論(경기 포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정석해·한철하 공역/Bertrand Russel,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서양 철학사)(서울: 문교부, 1960)
- 丁若鏞, 與猶堂全書
- 정윤표, 티끌 속의 무한 우주(서울: 사계출판사, 1994)
- 鄭長澈 譯解, 荀子(서울: 해원출판사, 1996)
- 鄭 玄, 周禮注
- 周濂溪, 太極圖說
- 車基璧, 民主主義의 理念과 歷史(서울: 한길사, 1980)
- 최동환 解説, 참전계경-366事(서울: 삼일, 1996)
- 崔 明 譯/Arend Lijphart, 民主國家論(서울: 법문사, 1985)
- 최승언·이은아 옮김/John D.Burrow, 우주의 기원(서울: 동아출판사, 1995)
- 馮友蘭, 中國哲學史
- 馮友蘭, 新原道
- 韓國政治學會 편, 韓國現代政治史(서울: 법문사, 1996)
-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1986)
- 合原一幸 著: 과학세대 옮김, 카오스(서울: 한뜻, 1996)
- 현문식 옮김/NHK아인슈타인팀, 아인슈타인의 세계(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황도근 옮김/M. 도버·리처드 A. 밀러, 지구 대폭발(서울: 자작나무, 1997)
 황우연, 天符의 脈(서울: 우리출판사, 1995)

『周易』 『周易傳義大全』 『論語』 『老子』
 『莊子』 『韓書藝文志』 『禮記』 『中庸』
 『孟子』 『역전』 『詩經』 『左傳』
 『道德經』 『太白逸史』 『淮南子』 『蘇塗經典』
 『高麗國本記』 『大倥敎 經典』 『易』 『番韓世家 上篇』
 『주자』

나. 서 양

Andresen, Carl, Zum Augustinggesprach der Gegenwart, Darmstsd, 196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New York: Vintage Books, 1957)
 Arend Lijphart, Democracies(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Aristotle, The Politics
 Asa Briggs, The Age of Improvement(London: Longmans, 1959)
 Carl L. Becker, Modern Democracy(New Haven: Yale Univ. Press, 1941)
 Daniel Bell, The Radical Right(New York: Doubleday, 1963)
 Eun Ho Lee and Woosang Kim, Recating International Relations Paradigms(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6)
 Ernest Barker, The Citizens Choice(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38)
 H. B. Mayo,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H. G. Creel,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1949)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Yale Univ. Press, 1950)
 Harold J. Laski, Liberty in the Modern State(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48)

- J. H.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Oxford:Clarendon Press,1989)
- James Bryce, Modern Democracies(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1)
- J. Locke, Treatise of Government
- J. S. Mill, On Liberty(1859)
- L. Lipson, The Democratic Civilization(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 M. J. Cruzier, S.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New York: New York U.P., 1975)
- M. Rejai,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New York: Atheston Press, 1967)
- Michel Crozier, Samuel P. Huntington, Joji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75)
-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Movements and Regime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9)
- Thucydide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ed. and trans. by Sir Richard Livingston, "World' s Classics," (1951)
- W. Barrett, ed. Zen Buddhism Selected Selected Writings of D.T. Suzuki
- W. Lippmann, A Preface to morals(New York: The Macmillan Co., 1929)
- William E. Rappard, The Crisis of Democracy(Chicago: 1938)

2. 논문

- 金永斗, "대순 사상과 그 세계사적 전개"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金正泰, "대순 진리의宗旨에 관한 연구"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림영창, 「내가 본 대순진리회: -4대종지는 오늘의 지도원리」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경오년 11. 30)
- 림영창, "대순 사상의 神觀攷"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박용숙, 「天符經의 解讀과 原型思想」 天符經 研究(서울: 한배달, 1994)

- 安鍾沄, “世界化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대순사상과 한국정치: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大巡思想論叢: 제2집 (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李恒寧, “大巡思想의 宇宙史的 意義”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제1집 (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崔東熙, “大巡 信仰의 對象에 대한 研究”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John Dewey, 「존 듀이의 회담」 李克燦 編, 民主主義(서울: 종로서적, 1987)
- Maier, Hans, “Augustinus” in ; Rausch, Heinz V. (ed.), Politischen Denker 1, München 1974
- J. J. Rousseau, “Du Contrat Social” , The Political Writing of J. J. Rousseau, ed., C. E. Vaughan, New York, 1962
- J. S. Mill, “Of the Limits of the Authority of Society over the Individual” in Utilitarianism
- J. S.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Utilitarianism

3. 기 타

세계일보, 1997년 5월 23일 ~ 24일

중앙일보, 1997년 5월 23일 ~ 24일

The Washington Times, 5. 28. 1997